

2025 한성대 서비스러닝

〈지하철로 읽는 성북의 일상 - 지하철역과 역세권〉

○ 주제

- 〈지하철로 읽는 성북의 일상 - 지하철역과 역세권〉

○ 기획 의도

- 본 결과물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서비스러닝 프로젝트 〈지하철로 읽는 성북의 일상 - 지하철역과 역세권〉의 성과를 정리한 합본 보고서이다. 지하철역과 역세권을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 조사 결과 중 최종보고서를 중심으로 편철·구성하여, 성북구의 일상과 공간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 활동 기간

- 2025.09.~2025.12.

○ 조사 대상

- 지하철역: 성북구 내 중복된 역을 제외한 11개 역사
- 역세권: 각 역사 반경 500m 이내의 주요 시설 2~3곳

○ 조사 및 기록 과정

- 사전 조사를 통해 각 역사와 역세권의 기본 정보를 수집·정리하고, 공통된 조사 틀을 바탕으로 현장 조사 계획을 수립하였다.
- 현장 방문을 통해 역사 내부와 역세권 주요 공간을 직접 체험하며 관찰 및 촬영 조사를 진행하였다.
-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별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하나의 합본 결과물로 정리하였다.

○ 프로젝트 결과물 구성

- 본 프로젝트에는 총 18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최종보고서 9건과 사진 자료 602건을 생산·수집하였다.
- 이 중 본 문서는 최종보고서 9건을 편철·정리한 합본 결과물로 순서는 아래와 같다.

순서	역이름	순서	역이름
1	성신여대역	6	상월곡역
2	길음역	7	돌곶이역
3	보문역	8	북한산보국문역
4	안암역	9	정릉역
5	고려대역		

- 사진 자료 602건은 성북마을아카이브 「2025 한성대학교 서비스러닝 사회봉사활동」 기록물철에서 열람할 수 있다.

조사대상	성신여대입구역	작성자	이하영, 김예인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

역명	성신여대입구역(돈암)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102
개통 연도	4호선: 1985년 4월 20일 우이신설선: 2017년 9월 2일
면적	성신여대입구역은 4호선과 우이신설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노선별 대합실과 승강장의 규모 차이가 크다. 4호선 구간은 규모가 넓고 이용객이 많아 주 동선을 이루며, 우이신설선 구간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된다. 4호선: 지하1층 대합실 3,967㎡, 지하2층 승강장 2,362㎡ 우이신설선 : 지하3층 대합실 611.66㎡, 지하4층 승강장 726㎡
역명 변천 및 유래	성신여대입구역은 계획 단계인 1983년 당시 행정구역인 성북구 돈암동을 반영하여 '돈암역'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역세권의 주요 거점인 성신여자대학교와의 연계를 고려하여, 1985년 개통 직전에 '성신여대입구역'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현재는 병기역명으로 '돈암'이라는 명칭도 함께 사용되고 있다.

2) 역사 내부 정보

- 출입구 수 및 주요 연결 시설

출구 번호	주요 연결 시설
1번 출구	유타몰,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중·고등학교, 동선동 주민센터
2번 출구	성북경찰서, 성북구청, 돈암동 우체국
3번 출구	돈암119안전센터, 돈암제일시장, 삼선동 주민센터
4번 출구	돈암초등학교, 한신한진아파트
5번 출구	정덕초등학교, 우촌 초등학교, 기업은행
6번 출구	이수아파트, 더서울병원
7번 출구	고명중학교, 성북시각장애인 복지관, 매원초등학교, 고명외식고등학교

성신여대입구역은 총 7개의 출입구를 갖춘 환승역으로, 1번 출구는 유타몰과 성신여자대학교, 성신여자중·고등학교, 동선동 주민센터와 인접하며 주변 골목에는 카페·패션·뷰티 상점이 밀집해 대학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 2번 출구는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돈암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되고, 3번 출구는 돈암119안전센터, 돈암제일시장, 삼선동 주민센터와 인접한다. 4번과 5번 출구는 초등학교와 대단지 아파트와 인접해있으며, 6번 출구는 이수아파트와 더서울병원, 7번 출구는 고명중학교, 성북시각장애인 복지시설 등과 연결되어 있다.

- 구조(승강장 형태, 대합실)

4호선 :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

우이신설선 :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

- 시설 현황(이동/안전/생활/정보/무장애/문화 등)

이동 접근시설	-에스컬레이터: 우이신설선과 4호선 간 환승이 가능한 긴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1번 출구와 4번 출구에는 상·하행 에스컬레이터가 각각 배치되어 있음 -엘리베이터: 환승 전용 38인승 대형 엘리베이터 3대가 운행 중이며, 지하 1층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는 2번 출구와 3번 출구에 배치되어 있음
생활 편의 시설	-제과점, 꽃집, 의류 매장, 식자재 마트가 입점되어 있음 -물품보관함, 현금지급기(ATM), 위생용품판매기, 스낵자판기, 즉석사진기, 도서무인반납기, 공중전화기 등이 갖추어져 있음
무장애·약자 지원시설	-대합실에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휠체어용 이동식 안전발판이 설치되어 있음 -출구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에 휠체어 경사로가 확보되어 있음
정보 안내 시설	-고객센터(역무실)와 한·영·중·일 4개 국어 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으며, 주변 주요 지점을 안내하는 지도가 비치되어 있음 (디지털종합안내도) -시각장애인 전용 점자 안내판이 설치되어있음

3) 이용 현황

- 일 평균 승하차 인원(2025년 8월 기준)¹⁾

4호선	승차: 약 19,794명/일 하차: 약 19,400명/일
우이신설	승차: 약 3,461명/일 하차: 약 3,726명/일

- 평일 출퇴근 시간대(07:00~09:00, 18:00~20:00) 4호선은 승·하차가 집중되어 혼잡도가 높으며, 우이신설선은 상대적으로 혼잡이 낮지만 출퇴근 시간 4호선 환승 수요로 인해 성신여대입구역 구간에서 혼잡이 발생한다.

- 인근에 성신여자대학교의 통학생 대부분이 이용하는 역으로, 대학 개강 시즌(3~6월, 9~12월) 평일에 종강 시즌보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난다.²⁾

4) 역세권 주변 정보

- 주거 분포

대형 아파트 단지와 소형 오피스텔, 원룸,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해 다양한 주거 형태가 공존한다. 성신여대 학생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한 원룸, 여성 전용 쉼어 하우스 등 소형 주거 형태 발달해 1인·청년층 중심의 주거 수요가 뚜렷하다.

- 상권 분포 및 특징

성신여대 로데오 거리와 돈암시장 등이 인접해 상업시설 이용 접근성이 우수하다. 의류, 음식

1)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 통계」

2)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

점, 카페 등 다양한 업종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고 소비 활동이 활발하다. 특히 성신여자대학교 근처 역이라는 점에서 학생·청년층 중심의 상권이 형성되어있다.

- 공공·생활 기반 시설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돈암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이 인근에 위치해 행정 및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며 내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병원이 밀집해 편리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은행이 위치해 금융 업무 접근 용이하다.

- 교통 연계

4호선과 우이신설선이 환승되는 역세권으로 서울 도심 및 인근 지역 접근 용이하다.

간선·지선 버스와 공항 버스가 운행되어 지역 간 이동 및 공항 접근성 우수하며, 역 출구 주변에 공공자전거(따릉이) 대여소가 위치해 단거리 생활권 이동 편리하다.

5) 촬영계획

① 역사 내부

- 역사 내 상업시설 : 꽃집, 베이커리, 의류매장, 마트
- 역사 내 편의시설 : 물품 보관함, ATM기, 즉석 사진기, 무인도서대출기, 무인도서반납기 등
- 승강장 : 4호선 승강장, 우이신설선 승강장, 승강장 내 준공동판
- 이동 접근 시설 : 환승 전용 엘리베이터, 환승 전용 에스컬레이터, 출구 에스컬레이터 및 엘리베이터
- 무장애·약자 지원시설 : 시각 장애인 전용 점자 안내판, 휠체어용 이동식 안전 발판 안내문, 휠체어 경사로
- 안전·재난 시설물 : 구호용품 보관함, 소방시설(소화전, 소화기), 특별 피난 계단 등
- 출구별 전경 : 1번 출구부터 7번 출구까지 외부 전경

② 역세권

- 유타몰

선정 이유: 역과 직접 연결된 복합상업시설로, 성신여대입구역 이용객의 주요 유입 동선과 상권의 중심 역할을 하는 공간

촬영 대상: 유타몰 외관, 역과 연결되는 출입구, 층별 주요 시설

- 로데오 거리

선정 이유: 청년층 중심의 활발한 소비·문화 상권으로, 역세권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 거리

촬영 대상: 로데오 거리 전경, 상점가 풍경, 골목 상권

- 성북구청

선정 이유: 역세권에서 접근 가능한 행정기관으로, 지역 생활·행정 기반 시설과의 연계성을 보여줌

촬영 대상: 성북구청 건물 외관, 안내 표지판, 주변 생활환경

- 돈암시장

선정 이유: 지역 주민의 일상 소비가 이루어지는 대표적 전통 상권

촬영 대상: 시장 입구, 내부 거리 전경, 외부 거리 전경

2. 현장 조사

1) 역사 내부 체험

- 출입구 접근성 (경사도, 계단, 휠체어/유모차 접근성)

2번 출구와 3번 출입구는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경사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의 이동 접근성이 우수하다. 반면, 그 외 출입구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모차·휠체어 이용자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다.

- 시설 이용 편리성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작동 여부, 청결도)

역사 내부에는 38인승 엘리베이터 3대와 환승용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층간 이동과 환승이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에스컬레이터는 1번 출구와 4번 출구 방향에서 상·하행 모두 정상 가동 중이었으며, 이용에 지장이 없었다. 전반적인 청결 상태도 양호하여 통행 공간에 장애물이 없고 바닥 및 설비 상태가 정돈된 모습이었다.

- 편의시설 상태 (화장실, 상점, 수유실 등)

지하 1층 화장실은 내부 청결 상태가 양호하고 안내 표지판이 명확하게 배치되어 있어 이용 접근성이 좋다. 화장실 입구에는 이용객이 잠시 대기하거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벤치가 비치되어 있어 편의성이 더욱 높았다. 역사 내 상점(의류매장, 꽃집, 베이커리, 마트 등)은 모두 정상 운영 중이었다. 한편, 수유실은 현장에서 확인되지 않았고 역사 내 안내도에서도 별도로 표시되지 않아 관련 시설은 제공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 체감 분위기 (안전성, 안내 표지판 가시성)

소화전, 소화기, 방수기구함 등 주요 안전시설이 대합실과 승강장 곳곳에 적절히 배치되어 있으며, 구호용품함도 함께 비치되어 있어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전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역사 내부에는 특별피난계단이 확보되어 있어, 비상시 이용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동선이 구성되어 있다. 안내 표지판(층수, 출입구 방향, 환승 정보 등)은 이용자의 시야 높이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 가시성과 가독성이 우수하다. 특히 비상대피안내도는 역사 내부 구조와 주요 동선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현재 위치와 대피 경로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2) 역세권 체험

- 주거지 현장 모습 (건물 노후도, 생활감)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주거지는 신축 건물과 중·소규모의 노후 주택이 혼재해 있으며, 골목길은 생활감이 느껴지는 편이다. 원룸, 다세대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이 밀집해 있어 학생과 1인 가구 중심의 주거 특성이 나타난다.

- 상권 분위기 (영업 활발 정도, 전통시장 분위기)

성신여대입구역 주변 상권은 카페, 의류매장, 화장품점, 음식점 등 다양한 업종이 골고루 분포해 있으며, 주중·주말 모두 유동인구가 꾸준해 영업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로데오거리 일대는 패션 매장과 프랜차이즈 카페, 소규모 음식점이 밀집해 있으며, 성신여자

대학교를 중심으로 20대 여성과 젊은층의 유동인구가 많아 트렌디하고 활기찬 상권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저녁 시간대에는 조명이 밝고 보행량이 증가해 보다 활발한 거리 분위기가 나타난다.

돈암시장 내부에는 채소·과일, 정육, 의류매장, 마트 등 다양한 품목의 상점이 줄지어 밀집해 있어 짧은 동선 안에서 필요한 물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다. 전통시장 특유의 친근한 분위기와 상점 간 높은 밀집도를 갖추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적 소비가 이루어지는 생활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역 주변 상권은 현대적 소비 공간과 전통시장 기능이 공존한다.

- 공공시설 접근성 (도보 거리, 이용 편리성)

역세권 내에는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이 가까운 거리에 위치해 있어 도보 접근성이 우수하다. 또한 피부과·정형외과 등 다양한 의료기관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도 밀집해 있어 행정·치안·의료·금융 서비스를 모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환경이 갖춰져 있다.

- 교통 연계 실제 체감 (버스 환승 편리성, 자전거 거치 상태, 보행 환경)

성신여대입구역은 역 앞에 다수의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환승이 매우 편리하며, 주요 간선·지선 노선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공공자전거 대여소도 3번 출구와 5번 출구에 마련되어 있으나, 시간대에 따라 거치대가 부족해지는 편이다. 보행 환경은 전반적으로 양호하나 상업시설이 밀집된 구간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아 혼잡도가 다소 높은 편이다.

3) 이용 현황 관찰

- 시간대별 혼잡도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은 4호선 라인 역들 중에서도 환승역이기에 혼잡도가 높은 역이다. 퇴근 시간대인 18:00에 방문해 보았을 때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충무로 등 다른 환승역으로 가기 위해 하행 방향 열차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출퇴근 시간이 아닌 10:00나 13:00에 방문하였을 때는 비교적 한가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우이신설선 보다는 대합실과 승강장의 규모가 넓어, 이용하는 사람들을 수용하기에 충분해 보였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에는 내리는 사람보다 타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 열차 안이 매우 혼잡해 보였다.

- 시간대별 혼잡도 (우이신설선)

우이신설선의 경우 승강장의 규모가 이용하는 사람들의 규모에 비해 협소하다. 우이신설 차량은 2량 밖에 되지 않아 출퇴근 시간에 매우 혼잡해 보였다. 그렇기에 이용자가 붐비는 퇴근 시간 18:00에 방문해 보았을 때, 스크린도어에 붙어서 대기하는 행렬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우이신설선에서 몇 개 없는 환승역이기에 4호선을 이용하려는 이용객들이 많이 하차하고 반대로 4호선에서 우이신설선으로 환승하려는 이들도 많이 이용하였다.

- 주요 이용자 층 (학생, 직장인, 가족, 관광객 등)

성신여대입구역은 성신여자대학교와 가까운 입지 특성상 젊은 여성 학생들의 비중이 높게 보였다. 역 입구와 로데오거리 방향으로 학생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또한 주변에 은

행, 사무시설, 음식점 등이 많아 점심·퇴근 시간대에는 직장인의 이동도 꾸준히 확인되었고, 전통시장과 주거지역이 인접해 있어 인근 주민이나 가족 단위 이용자도 종종 찾아볼 수 있었다. 역 주변 이용자 가운데 관광객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게 관찰되었다. 성신여대입구역은 상업시설과 주거지, 교육시설 중심으로 기능하는 역세권으로, 외부 관광 목적의 방문객보다는 학생·직장인·지역 주민이 주 이용층을 구성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 (대합실과 승강장)

성신여대입구역은 4호선과 우이신설선의 환승역이기에 출퇴근 시간에 더욱 붐비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특히 대학가라는 특성상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었고 통근을 하는 이들도 많이 역을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 (지하철 출구)

해당 역 출구와 연결되어 있는 마트와 상가의 이용이 높아 승강장, 대합실 뿐만 아니라 연결 통로도 붐비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특히 3번 출구통로에 위치한 마트가 퇴근 시간대에 퇴근을 하고 집에 가는 길에 마트를 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붐비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 (역세권)

대학가 특성상 로데오 거리에 많은 대학생과 인근 중·고등학생들이 거리를 거니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성신여대입구역 상권에 대한 이미지를 엿보기 위해 진행한 실제 인근 거주하는 주민의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중 '대학이 인근에 있어 상권이 다양하고 특히, 대학생들과 학생들이 있어 지역이 활기차다'라는 긍정적인 반응도 있었다.

조사한 역세권 중 성북구청을 답사하였을 때는 역 인근에 구청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오는 이들도 편리하게 구청의 일 처리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구청 앞에 있는 성북천 광장이 있어 도심 속 여유로움을 찾은 이들이 많았다.

3. 결론 (종합 분석)

- 종합적 특징

성신여대입구역은 4호선과 우이신설선이 만나는 환승역으로, 서울 도심 및 인근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뛰어난 교통 요충지이다.

교통 및 규모: 4호선 구간은 넓고 이용객이 많아 주 동선을 이루며, 우이신설선 구간은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된다. 환승 전용 대형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층간 이동 및 환승이 원활하다.

주요 이용자: 인근 성신여자대학교 통학생들이 대부분 이용하며, 대학 개강 시즌에 이용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출퇴근 시간에는 직장인과 학생들의 통학 수요로 인해 혼잡도가 높다.

상권 특성: 성신여대 로데오거리와 돈암시장 등이 인접해 상업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특히 대학가 상권으로, 카페·패션·뷰티 상점이 밀집해 있으며, 학생·청년층 중심의 활발하고 트렌디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전통시장(돈암시장)과 현대적 소비 공간이 공존한다.

주거 및 생활 환경: 대형 아파트 단지, 소형 오피스텔, 원룸, 다세대 주택 등이 혼재하며, 성신여대 학생 수요를 기반으로 한 원룸, 여성 전용 쉼어 하우스 등 1인·청년층 중심의 소형 주거 형태 발달이 뚜렷하다.

공공·생활 기반: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돈암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과 내과, 정형외과 등 다양한 병원, 주요 은행이 밀집해 행정, 치안, 의료, 금융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다른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성

성신여대입구역은 대학가 상권과 지역 생활 중심지의 기능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가장 큰 차별성이다.

환승 노선의 이질성: 4호선의 넓고 이용객이 많은 주 동선과 우이신설선의 상대적으로 소규모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 두 노선의 규모와 혼잡도 차이가 뚜렷하다. 우이신설선은 규모가 협소해 출퇴근 시간에는 스크린도어에 붙어 대기하는 행렬이 관찰될 정도로 혼잡도가 높다.

강력한 청년층 유입 상권: 역세권 내 성신여자대학교를 중심으로 20대 여성 및 젊은층의 유동 인구가 많아, 로데오 거리를 중심으로 트렌디하고 활기찬 소비·문화 상권이 발달했다. 이러한 청년층 중심의 상권이 전통적인 돈암시장과 함께 공존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병기역명 '돈암': 계획 단계의 '돈암역'에서 최종적으로 '성신여대입구역'으로 확정되었으나, 현재까지 '돈암'이라는 명칭이 병기역명으로 함께 사용되고 있어, 지역의 행정구역 역사와 주요 거점(대학)의 연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다.

교통약자 접근성: 환승역임에도 불구하고 2번과 3번 출구에만 엘리베이터와 휠체어 경사로가 함께 설치되어 있어 교통약자 이동 접근성이 특정 출구에 집중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 향후 변화 가능성 (재개발, 상권 변동, 교통 확장 등)

상권 변동 가능성: 현재 성신여대 로데오 거리는 학생·청년층 중심의 활발한 상권이지만, 유행에 민감한 청년층을 주 이용자로 한다는 점에서 상권의 트렌디함과 변동성이 높을 수 있다.

주거 형태 변화: 1인 가구 및 청년층 중심의 소형 주거 형태(원룸, 쉼어 하우스 등)가 발달한 만큼, 해당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소규모 주택 및 주거 시설의 공급 및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

혼잡도 개선 필요성: 현재 4호선 및 우이신설선 모두 출퇴근 시간 혼잡도가 높은 구간에 포함되며, 환승역으로서 혼잡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이용객 증가 시 혼잡 완화 대책 및 동선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조사대상	길음역	작성자	박예준, 이상빈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

역명	길음역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 지하248 (길음동 877-66)
개통 연도	1985년
면적	길음역 면적 정보 없음.
역명 변천 및 유래	역명 동명의 유래에 따라 정해짐. 길음동이라는 지명은 <길게 놓인 골짜기>이기 때문에 <길음>이라는 이름이 붙음.

2) 역사 내부 정보

출입구 수 및 주요 연결 시설

: 10개의 출구 + 롯데캐슬 출입구 1개. 총 11개

1~4번 출구는 삼부컨비니언 아파트 단지 안쪽에 밀집.

나머지 출입구들은 동소문로 쪽 대로변 또는 주거 상업 혼합지역과 연결.

구조(승강장 형태, 대합실)

: 지하 2층구조의 복선 섬식 승강장 형태, 대합실->개찰구->대합실->승강장 구조

시설 현황(이동/안전/생활/정보/무장애/문화 등)

: 2번, 3번출구, 롯데캐슬 출구 에스컬레이터 있음 / 승강장 안전문(스크린도어)출구별 배치 / 길음역 첫차, 막차 시각표 배치 / u-도서관 책드림 서비스 배치 / 열차시간표, 지하철 노선도 확인할수 있는 디지털종합안내도

3) 이용 현황

일평균 승차/하차 인원(서울교통공사 공개자료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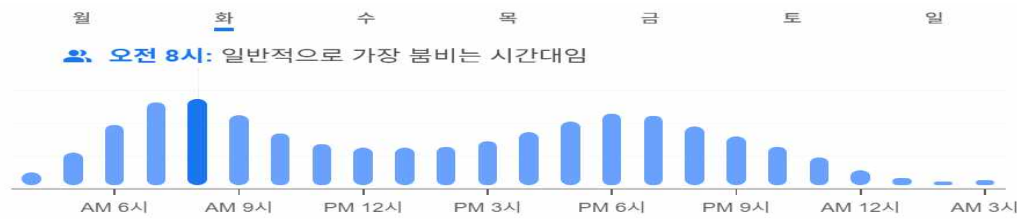
: 평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약 2만~2만3천명 정도이고 주말은 1만~1만5천명 정도 이용 추세

시간대별 승하차 추이 (출근·점심·저녁·주말 등)

: 출근 시간 이전인 6시-7시 사이에는 1300-1400명 정도 승차하고 200-300명 정도가 하차
피크시간인 아침 7시-8시와 8시-9시 각각 3천8백명에서 4천명 정도의 인원이 승차하고 각각 600명 1000명 정도의 인원이 하차

퇴근 시간대인 17-20시 사이에는 17-18 : 약 1600명 / 18-19 : 약 3200명 / 19-20 : 약 2200명 정도로 시간대별로 분포되어 있음. 주말에는 승하차 인원이 총합 1만명 정도 추이

이용자 특성(시간대별 승하차 추이, 역 주변 시설으로 추정 가능한 이용자층 분석)



: 대규모 아파트 단지과 학교 밀집과 교육 환경이 모여 있어 가구원과 학부모의 수요가 많은 것으로 추정, 또한 출퇴근 시간대의 인원이 많은 것으로 보아 직장인과 맞벌이 부부가 많은 것으로 추정

4) 역세권 주변 정보

주거 분포

: 삼부아파트, 돈암현대아파트, 삼성아파트, 롯데캐슬클라시아, 강남아너스빌아파트, 길음뉴타운9단지아파트, 범양아파트

상권 분포 및 특징

: 아파트단지 내의 복합상가의 형태로 상권이 분포되어있고, 근처 초중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시설들이 많이 배치되어 있음. 길음뉴타운을 배후로 하는 젊은 세대 중심의 향아리 상권으로 주거 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안정적인 매출을 보임.

공공·생활 기반 시설

: 길음시장, 성북미디어문화마루, 청년공간 길이음(청년쉼터), 길음아지트(청소년 쉼터) 등

교통 연계

중앙버스전용차로 : 6011, 8101, N15, N16, 100(용산구청), 102(동대문), 103(서울역), 104(서울역), 107(종로5가), 109(광화문), 140(AT센터), 142(방배동), 150(시흥대교), 151(중앙대), 152(경인교대후문), 160(온수동), 172(상암동), 710(상암차고지), 143(정릉), 171(국민대앞), 163(대방역), 121(서울숲), 1113(월곡동), 1115(미아사거리역), 1164(길음역), 성북21(고려대역), 6102(인천공항), 110B(정릉), 143(정릉), 171(국민대앞), 1213(국민대앞), 7211(진관공영차고지), 1114(성북생태체험관), 성북06(산림초소), 성북07(정릉4동종점), 성북08(신안아파트.길음초등학교), 성북09(신안아파트.길음초등학교), 110A(정릉)

5) 촬영계획

① 역사

출입구 전경 및 안내 표지판, 개찰구 및 대합실 주요 시설(화장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유실, 고객 안전실, 책드림 서비스), 승강장 구조 (플랫폼, 스크린도어, 안내 전광판), 역사내의 상점, 복합상가 등 시설 촬영계획

② 역세권

선정대상(선정이유, 촬영 내용)

- 길음시장 (정비사업 계획으로 사라질 60년이상의 전통시장의 모습을 먼저 담고 싶음.)
- 성북 미디어 문화 마루 (미디어 관련 체험과 행사가 많아 찾는 이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함.)
- 길음아지트 (지하공간에 마련된 이름 그대로 아지트에서는 어떤 문화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 내부공간의 모습을 담고, 어떤활동을 하는지 활동계획과 일정들을 촬영 및 찾아가는 길 등 세세한 촬영 계획

2. 현장 조사

1) 역사 내부 체험

출입구 접근성 (경사도, 계단, 휠체어/유모차 접근성)

계단 경사: 출입구 계단의 경사도가 사진으로 보아 비교적 급할 수 있으며, 이는 휠체어나 유모차 접근 시 불편함을 줄 수 있음.

시설 이용 편리성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작동 여부, 청결도)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어 이동 약자의 접근이 가능하며, 2번, 3번 출구와 롯데캐슬 출구에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이동 편리성을 높임. 현장 조사 갔을 당시에는 엘리베이터 하나가 사용 불가였음.

청결도: 기본적인 시설들이 갖춰져 있어 깔끔하게 유지되고 있음.

편의시설 상태 (화장실, 상점, 수유실 등)

편의 시설: 역사 내부에 상점, 수유실, 고객안내실, 그리고 u-도서관 책드림 서비스 등 편의 시설이 배치되어 있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또한, 휠체어 충전 공간이 마련되어 있음.

체감 분위기 (안전성, 안내 표지판 가시성)

안내 시설: 출구 안내판 및 디지털 종합 안내도 가 있어 정보 습득이 용이합니다.

안전성: 승강장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역세권 체험

주거지 현장 모습 (건물 노후도, 생활감)

노후도/신축 건물: 길음역 주변은 길음뉴타운을 중심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예: 롯데캐슬, 삼성아파트, 길음뉴타운9단지아파트 등) 와 함께 노후화된 건물 및 신축 건물이 혼재된 모습임. 특히 롯데캐슬 클라시아와 같은 신축 건물이 있어 재개발과 도시 변화가 진행 중임을 보여줌.

상권 분위기 (영업 활발 정도, 전통시장 분위기)

상권 형태: 아파트 단지 내 복합상가 형태와 더불어, 주거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젊은 세대

중심의 향아리 상권의 특징을 보이며 안정적인 매출을 기대할 수 있음.

전통시장: 길음시장은 정문과 후문이 있으며, 60년 이상의 전통을 가진 시장으로, 현장 조사를 갔을 당시에는 사람이 별로 없었지만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전통시장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음. (향후 정비 사업 계획이 있음).

공공시설 접근성 (도보 거리, 이용 편리성)

주요 시설 : 길음시장, 성북 미디어 문화 마루, 청년 공간 길이음 (청년 쉼터), 길음 아지트 (청소년 쉼터) 등 공공·생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음. 특히 성북 미디어 문화 마루와 길음 아지트는 문화 활동의 거점이며, 길음 아지트는 신축 건물인 롯데캐슬과도 연결되어 있음.

교통 연계 실제 체감 (버스 환승 편리성, 자전거 거처 상태, 보행 환경)

교통 연계: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운영되고 있어 다양한 버스 노선과의 환승이 매우 편리하며, 대중교통 이용이 활발함. 중간중간에 전기 자전거가 배치되어 있었고, 성북 미디어 문화마루 앞에는 넓은 자전거 거처대가 배치되어 있었음. 보행 환경은 매우 깨끗한 편이었음.

3) 이용 현황 관찰

시간대별 혼잡도 (출근, 점심, 저녁, 주말)

이용 추이: 평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약 2만~2만3천 명, 주말은 1만~1만5천 명 정도로 이용 추세가 높습니다.

피크 시간: 현장 조사 당시 출근 시간대인 7시-9시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승차하고, 퇴근 시간대인 18시-19시 사이에도 많은 사람들이 하차하는 등 직장인의 이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였음.

주요 이용자 층 (학생, 직장인, 가족, 관광객 등)

주요 이용자: 대규모 아파트단지와 학교 및 교육시설 밀집으로 인해 가구원, 학부모, 직장인 등의 이용자층이 두드러지게 보였음.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

대규모 주거 단지(뉴타운)를 기반으로 생활 편의시설 및 교육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주거 만족도가 높고 활기찬 생활권의 분위기가 느껴졌음. 전통시장과 신축 건물이 공존하여 과거와 현재가 함께하는 변화하는 지역의 모습이 보였고, 걸어가다 보면 현대백화점에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 많은 이용객이 존재했음.

3. 결론 (종합 분석)

이 역세권의 종합적 특징

길음역 역세권은 주거 중심의 대형 뉴타운 개발과 그에 따른 안정적인 향아리 상권이 형성된 지역임. 10개의 출구와 롯데캐슬 출입구 및 중앙버스전용차로 등 발달된 교통 연계성을 바탕으로

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삼부, 돈암현대, 삼성, 롯데캐슬 등) 주민들이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는 주요 거점 역할을 함. 직장인들의 출퇴근 수요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교육 수요가 높은 편이며 길음시장과 성북 미디어 문화 마루와 같은 공공시설을 통해 문화적, 생활적 인프라도 확보하고 있음.

다른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성

길음역은 다른 역세권에 비해 대규모 뉴타운 아파트단지가 역세권을 둘러싸고 있어 상권이 주거 민에게 의존하는 향아리 상권의 특징이 뚜렷하며, 이는 외부 유입보다는 지역 주민 중심의 안정적인 소비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차별화됨. 또한, 60년 이상의 전통시장(길음시장)과 최신식 뉴타운(롯데캐슬 등)이 공존하며 도시의 변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도 특징적임.

향후 변화 가능성 (재개발, 상권 변동, 교통 확장 등)

재개발/상권 변동: 길음시장이 정비 사업 계획을 가지고 있어 향후 전통 시장의 모습은 변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주변 신축 건물(롯데캐슬)의 영향으로 지역의 노후화된 건물들도 재개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변화는 젊은 세대 중심의 향아리 상권에 더 많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교통 확장: 이미 중앙버스전용차로가 잘 갖춰져 있어 교통 연계성이 높지만, 주변 주거 단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인구 유입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조사대상	보문역	작성자	송진호, 이선병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

역명	보문역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동5가 보문로 156
개통 연도	2000년 8월 7일 (서울 지하철 6호선)
면적	6587.59m ²
역명 변천 및 유래	보문사에서 유래했다. 보(普)는 몸체에 온갖 덕을 갖춘 것을 말하고, 문(門)은 쓰임이 나타나는 곳을 말한다. 따라서 보문은 곧 보살이 일체의 성덕(性德)을 모두 갖춘 상태에서 기회와 시기를 따라 그 묘용을 보임을 말하는 것으로 관세음보살의 넓은 구세화신(救世化身)의 원력행을 말한다.

출처 : 서울교통공사 역사운영현황_20250310, 대한 불교 보문종, 성북마을 아카이브

2) 역사 내부 정보

출입구 수 및 주요 연결 시설 : 6호선 출입구 8개를 가지고있음. 현장답사결과 우이신설선 출입로 1개는 이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임.

주요 연결시설

1, 8번 출구 - 창신역 방면

1번 출구 - 보문사, 삼선치안센터, 서울삼선초등학교, 미타사, 보문현대아이파크아파트

8번 출구 - 성북종합사회복지관, e편한세상, 보문파크뷰자이아파트, 서울동신초등학교, 서울명신초등학교

2, 3번 출구 - 성신여대입구역 방면.

2번 출구 - 경동고등학교, 안암지구대

3번 출구 - 성북구청, 성북경찰서, 보험연수원, 성신여대

4, 5번 출구 - 안암역 방면. 4,5번 출구 어디로 나가든 성북천과 연결됨.

4번 출구 -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용문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보문2구역 재개발 지역(보문리슈빌아파트, 22년 3월 예정)

5번 출구 - 고려대 자연계 캠퍼스(이공대), 안암동주민센터

6, 7번 출구 - 신설동역 방면

6번 출구 - 보문시장, 보문동주민센터, 보문동우체국, 성북세무서, 대광초등학교, 대광중학교, 대광고등학교

7번 출구 - 보문 치안센터

구조(승강장 형태, 대합실) : 6호선은 지하 3층에 2면 2선의 상대식 승강장이며, 우이신설선은

지하 4층에 1면 2선의 섬식 승강장임, 두 노선 모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있음.

시설 현황(이동/안전/생활/정보/무장애/문화 등) : 이동 편의를 위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가 잘 갖춰져 있으며, 화장실과 고객 안전실 등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음.

3) 이용 현황

일평균 승차/하차 인원(서울교통공사 공개자료 활용) : 일평균 승차인원 7,851명/하차인원 7,324명 (25.01~25.08 - 한국교통공사)

시간대별 승하차 추이 (출근·점심·저녁·주말 등) : 출근승차 57,304명/출근하차 30,376명 (07시~09시), 점심승차: 11,502명/점심하차: 8,797명 (12시~13시), 퇴근승차 43,491명/퇴근하차 65,092명 (17시~20시)

이용자 특성(시간대별 승하차 추이, 역 주변 시설로 추정 가능한 이용자층 분석) : 보문역은 주거지와 학교, 행정기관, 여가 공간이 함께 위치한 생활 거점형 역으로, 다양한 이용자층이 시간대별로 뚜렷한 특성을 보인다. 아침에는 동신초·안암초·경동고 등 인근 학교 학생들의 등교와 직장인들의 출근으로 승차 수요가 집중되고, 낮 시간대에는 성북구청을 방문하는 주민과 공무원 이용이 꾸준히 이어진다. 오후에는 학생들의 하교와 학원 이동으로 단거리 승하차가 늘어나며, 저녁에는 학생과 직장인의 귀가 수요가 포함된다. 또한 6호선과 우이신설선을 연결하는 환승역 특성상 고려대·성신여대 등 대학가나 도심·북부 간 이동을 위한 환승객도 적지 않다.

출처 : 서울시 공공데이터 - 지하철 호선별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

4) 역세권 주변 정보

주거 분포 : 시·도유지 근처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모든 구역이 주거구역으로 지정됨. 보문아이파크 아파트(431세대), 보문동 아남아파트(218세대), 보문파크뷰 자이아파트(1,186세대), 보문 리슈빌 하우트(465세대), 이편한세상 보문(440세대), 보문하우스토리(162세대) 등 다양한 공동주택이 용도에 맞게 들어서있고 보문 센트럴 아이파크(199세대)가 26년 9월 입주를 목표로 공사중임. 입주예정세대까지 총 3,101세대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있음.

출처 :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 정보마당

상권 분포 및 특징 : 보문동의 사업체 수는 1,809개로 성북구 평균 1777개와 비슷한 수준임. 총 종사자수는 5,823명으로 성북구 평균 6309명에 못미침. 따라서 성북구 평균보다 개인사업 비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 개인사업체는 2,515개로 성북구 평균 1,351개 대비 2배에 달하고, 그 외의 법인 3,165개 성북구 평균 3,367개로 입증됨. 따라서 대부분이 주거지역으로 구성된 보문동은 영세한 사업자가 많은 주거형 상업지의 형태를 띠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서울시 공공데이터 - 사업체현황 종사자수(조직형태별/성별/동별)

공공·생활 기반 시설 : 보문동주민센터, 보문파출소, 서울특별시 성북소방서, 보문사

교통 연계 : 6호선과 우이신설선의 환승역이며, **다수의 버스 노선**과 연계되어 도심 주요 지역으로의 접근성이 우수

출구 별 버스노선 :

보문역 2번 출구 (정류소 ID: 08179)

간선 버스: 103, 142, 152, 272

지선 버스: 1014

심야 버스: N15

보문역 3번 출구 (정류소 ID: 08326)

간선 버스: 142, 273

지선 버스: 1014

보문역 4번 출구 (정류소 ID: 08296)

간선 버스: 273

지선 버스: 1111, 1112, 1162, 2115

보문역 5번 출구 (정류소 ID: 08295)

간선 버스: 273

지선 버스: 1111, 1112, 2115

보문역 6번 출구 (정류소 ID: 08180)

간선 버스: 103, 152, 272

심야 버스: N15

5) 촬영계획

① 역사

- 개찰구: 통로의 깊이감을 알 수 있도록 촬영
- 대합실 전경: 대합실을 최대한 넓게 담을 수 있도록 촬영
- 주요 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유실 등): 시설의 기능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촬영
- 역사 특이 시설 (상점, 팝업 공간): 상점 간판과 함께 주변 분위기를 담도록 촬영
- 스크린 도어 및 플랫폼: 스크린 도어 전체가 나오도록 촬영, 승강장 통로 촬영 (초상권 주의)
- 안내 전광판: 정보가 잘 보이도록 정면에서 촬영
- 출입구 전경 및 안내 표지판
- 개찰구 및 대합실 주요 시설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수유실, 고객 안전실 등)
- 승강장 구조 (플랫폼, 안내 전광판)
- 역사 특이 시설 (상점, 팝업공간, 디자인 요소 등)
- 역사 내부 전반적 분위기를 보여줄 수 있는 장면

② 역세권

- 성북구청: 성북구를 대표하는 공공기관, 성북구청 외관, 내부, 근처 시설 촬영
- 보문사: 보문역의 유래가 된 보문 마스코트, 내, 외부 촬영
- 각 출구 근처의 유서 깊거나 주목할 만한 시설 촬영을 통해 연결성 확보

2. 현장 조사

1) 역사 내부 체험

출입구 접근성 (경사도, 계단, 휠체어/유모차 접근성)

- 6호선: 대체로 깊은 지하에 위치하여 계단 및 에스컬레이터 길이가 긴 편이나, 엘리베이터

가 잘 갖춰져 있어 휠체어/유모차 접근성은 양호함.

- 우이신설선: 경전철 특성상 지상에 가까워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편리하며, 환승 동선도 비교적 짧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있음.

시설 이용 편리성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작동 여부, 청결도)

- 청결도: 두 노선 모두 전반적으로 관리가 잘 되어 깨끗한 편.
- 작동 여부: 주요 동선에 설치된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정상 작동하며, 환승 통로에 특히 잘 배치되어 있음.

편의시설 상태 (화장실, 상점, 수유실 등)

- 상점: 역사 내부에 간단한 편의점이나 소규모 상점 등이 존재하지만, 대형 상권은 주로 지상 역세권에 형성되어 있음.
- 수유실: 보문역에 수유실은 없음.

**체감 분위기 (안전성, 안내 표지판 가시성)

- 안전성: 역사가 현대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안정감을 줌.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안전함.
- 안내 표지판: 환승역 특성상 표지판이 명확하고 가시성이 높아, 초행길 이용객도 혼란 없이 이동 가능.
- 주로 거쳐 가는 역으로 이용되는 곳이라 보문역에 하차하는 인원은 많지 않았다. 주 이용객은 해당 거주민이나 학생이 가장 많았다. 이용객이 많지 않기에 조용하면서도 청결한 시설을 지닌 고즈넉한 분위기의 지하철역이다.

2) 역세권 체험

주거지 현장 모습 (건물 노후도, 생활감)

- 노후도·생활감: 역 주변에 오래된 다세대·다가구 주택과 함께 최근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입주한 신축 아파트 단지 (보문 아이파크)가 혼재되어 있음. 전반적으로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주거지 느낌이 강함.
- 성북천: 단지 옆에 성북천 산책로가 있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함.

상권 분위기 (영업 활발 정도, 전통시장 분위기)

- 상권: 상업 시설의 규모는 고려대 상권이나 성신여대입구 상권에 비해 다소 약한 편으로 평가됨.
- 전통시장: 인근에 보문시장 등 전통 재래시장이 있어 지역 주민의 생활 수요를 충족시키며, 소규모 상가들이 역 주변 골목에 밀집되어 있음.
- 활발 정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대 주요 상권 지역은 생활 인구로 활발하지만, 다른 대형 상권만큼의 유동 인구 밀집도는 낮음.

공공시설 접근성 (도보 거리, 이용 편리성)

- 성북구청: 성북구청을 비롯한 공공기관이 역세권 내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매우 높음. 버스와 지하철로 접근 가능.
- 교육·의료: 동신초, 안암초 등 초등학교가 가까우며, 고려대·성신여대 등 주요 대학과 고려대병원이 인근에 있어 교육 및 의료 접근성이 우수함.

교통 연계 실제 체감 (버스 환승 편리성, 자전거 거치 상태, 보행 환경)

- 버스 환승: 역 출입구 주변에 다수의 버스 정류장이 위치해 6호선-우이신설선-버스로의 환승 연계가 매우 편리함.
- 보행 환경: 성북천 산책로와 평탄한 보행로가 있어 전반적인 보행 환경은 양호한 편.

3) 이용 현황 관찰

**시간대별 혼잡도 (출근, 점심, 저녁, 주말)

- 출퇴근 시간대: 6호선과 우이신설선 모두 서울 주요 업무지구 (광화문, 강남, 여의도)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대 환승객과 통근·통학 이용객으로 인한 혼잡도가 높음.
- 주말·점심·저녁: 상권 규모가 크지 않아 성신여대입구역 등에 비해 이용객이 분산되나, 생활 수요에 의해 꾸준한 이용이 이루어짐.

**주요 이용자 층 (학생, 직장인, 가족, 관광객 등)

- 주요 이용층: 노년층이 가장 돋보이게 많았고 인근 대학교(고려대, 성신여대) 학생, 병원(고려대병원) 이용객 및 관계자, 그리고 재개발·신축 아파트에 거주하는 30~40대 실거주 세대와 기존 주거지 주민이 주를 이룸.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

- 개발을 통해 새로움과 오래됨이 공존하는 분위기. 현대적인 시설이나 복합문화공간이 많은 건 아니지만 역세권의 편리함과 성북천의 쾌적함 덕분에 주거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체감됨.

3. 결론 (종합 분석)

**이 역세권의 종합적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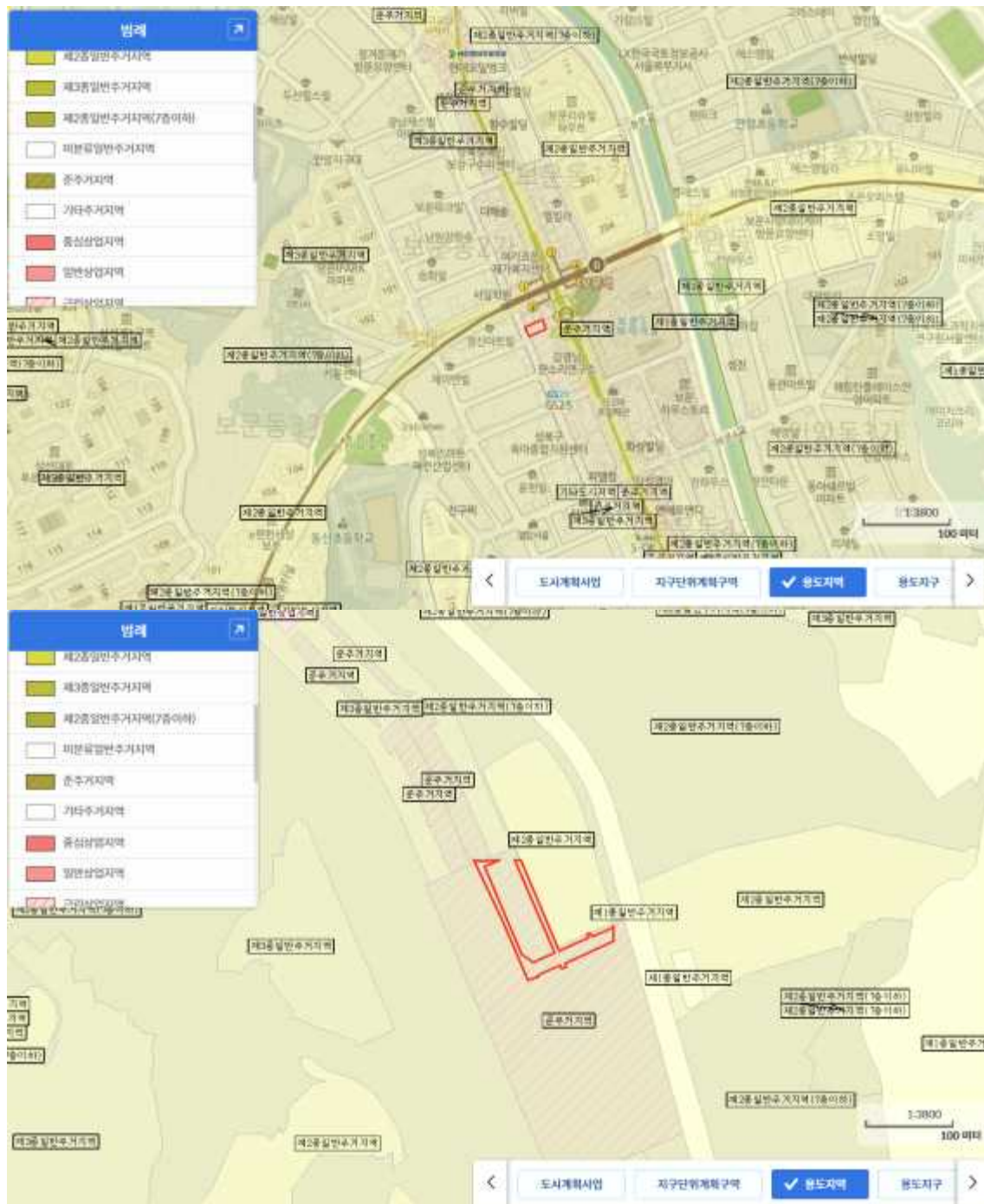
- 주거 중심의 역세권: 6호선과 우이신설선의 역세권으로 서울 주요 지역 접근성이 뛰어나지만, 상업 기능보다는 주거 기능이 매우 강조되는 지역임.
- 성북천을 끼고 있어 도심 속에서도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며, 대형 병원 및 교육 시설 접근성이 뛰어난 생활 거점형 역세권임.
- 주변의 여러 재개발 사업(보문 2, 5구역 등)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이며, 이는 노후 주택가의 이미지 개선 및 가치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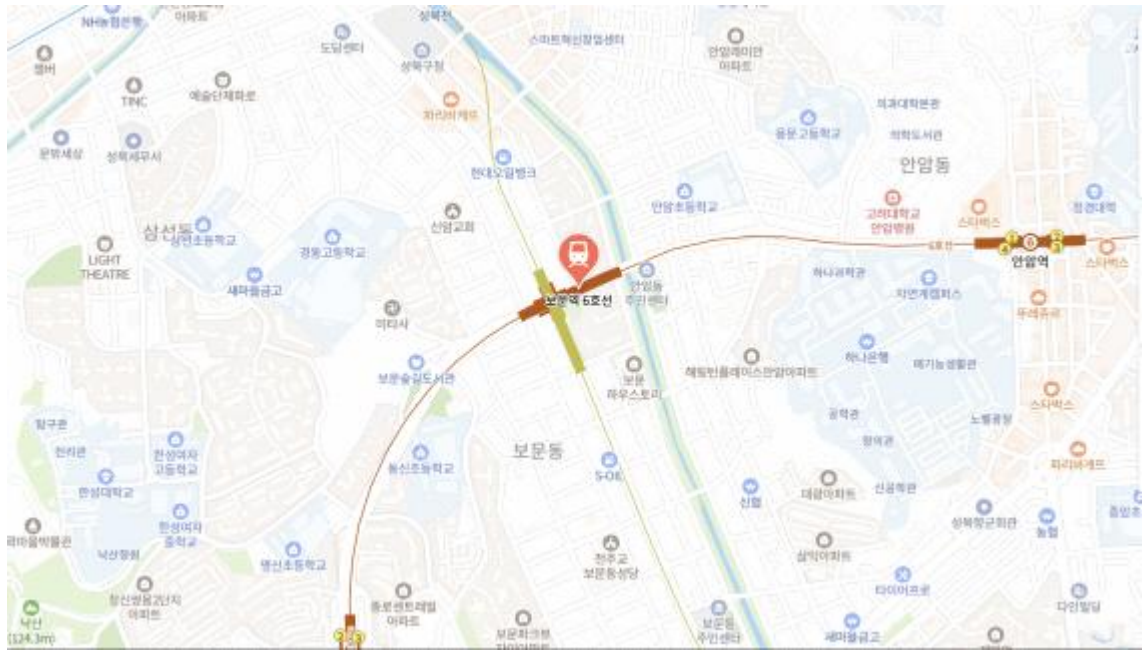
**다른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성

- 상권 대비 주거 환경 우수: 인접한 성신여대입구역이나 고려대역이 젊은 층 중심의 대형 상권이 발달한 것과 달리, 보문역은 조용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편리한 교통 연계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 도심 접근성과 자연의 조화: 광화문, 여의도 등 업무지구 접근성이 좋으면서도 성북천이라는 자연환경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것이 큰 차별점.

**향후 변화 가능성 (재개발, 상권 변동, 교통 확장 등)

- 주거 가치 상승: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신축 아파트촌이 형성되면서 지역의 주거 가치는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상권 재편 가능성: 신축 주상복합 건물(예: 보문동 하우스토리) 등에서 상가를 분양하며 새로운 상업 공간이 생겨나고 있어, 기존 전통시장 중심 상권이 신규 상가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이 있음.
- 교통 연계 강화: 우이신설선 개통으로 인한 역세권 효과가 이미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강북 지역의 교통 요충지로서의 입지가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보임.





조사대상	안암역	작성자	김진욱, 송진호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

역명	안암역
위치	서울 성북구 안암동 5 가 146-1
개통 연도	2000. 12. 15.
면적	지하 3 층 규모, 연면적 8,300.81 m ²
역명 변천 및 유래	안암역 역명은 안암동 3 가에 있는 '앓을바위'를 한자로 안암(安岩)이라고 옮겨 쓴 것에서 유래됨.

1 2

2) 역사 내부 정보

· 출입구 수 및 주요 연결 시설

출구 번호	주요 연결 시설
1 번 출구	고려대학교(녹지운동장, 화정체육관, 아이스링크), 성신여자대학교
2 번 출구	고려대학교(인문계), 고대앞사거리
3 번 출구	제기시장, 안암동로터리, 승가원(사회복지법인, 장애아동시설)
4 번 출구	고려대학교(자연계), 안암동

3

· 구조(승강장 형태, 대합실)

- 승강장: 2 면 2 선, 상대식 승강장, 지하 3 층 위치
- 대합실: 지하 1 층 및 지하 2 층 위치
- 스크린도어 설치 ○

¹ 성북마을아카이브, <6 호선 안암역>, <https://archive.sb.go.kr/isbcc/home/u/story/view/2052.do>

² 나무위키, <성북구 안암동>, <https://namu.wiki/w/%EC%95%88%EC%95%94%EB%8F%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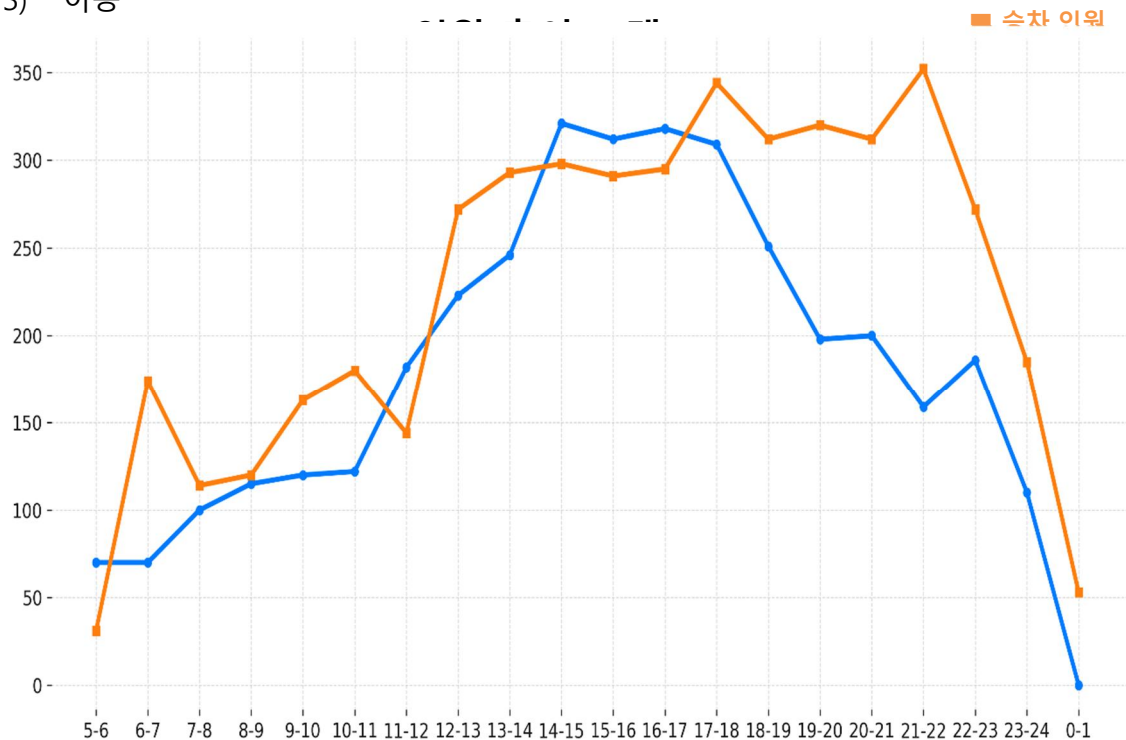
³ 위키백과, <안암(고대병원 앞)역>, <https://ko.wikipedia.org/wiki/%EC%95%88%EC%95%94%EC%97%AD>

· 시설 현황(이동/안전/생활/정보/무장애/문화 등)

이동·접근시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과 직접 연결되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음.
생활·편의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암생활: 청년들을 위한 창작주택, 유휴 호텔을 활용해 기숙사 형태로 운영되며 공유주방 및 코워킹플레이스 등의 시설을 갖춰 지역 주민과의 교류도 가능함. · 주요 병원: 안암병원, 우신향병원 등 주요 의료시설이 위치함. · 대학가 특성상 주변에 다양한 편의시설과 상권이 발달해 있음.
무장애·약자시설	· 자동개폐형 개찰구가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 등 교통약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음.
정보·안내시설	· 지하철 노선도, 역 시설 안내 등 기본적인 안내시설은 역내에 비치되어 있음.

<안암역(고대병원앞) 2024 년 시간대별 승하차

3) 이용



현황 ⁴

⁴ 서울 열린데이터광장, 성북구청 통계연보

- 일평균 승·하차

일평균 승하차(합): 약 14,079 명/일, 월별 변동이 있어도 1.2 만~1.5 만명대 수준.

- 시간대별 승·하차 추이

출근/등교(07~09 시): 승차 상승, 하차도 일정 규모 존재 — 고려대 수업 시작 시간과 병원 오전 외래·근무 시작의 영향

점심(12~13 시): 하차·승차 모두 소폭 상승 — 캠퍼스·병원·상권 점심 수요.

퇴근/하교(18~20 시): 하차 상승(귀향) + 승차 상승(저녁 이동).

주말: 아침은 평일 대비 낮음, 오후대 상승 — 병원 이용/면회·상권 이용·주변 거주민 활동 영향

- 이용자 특성

대학생/교직원 비중 큼: 고려대학교 인접, 학기 중 등·하교 피크 뚜렷.

의료수요: 고려대 안암병원 직원·외래·보호자·방문객 이동 지속. 평일 오전·오후 진료 시간대 수요 반영.

지역 상권/거주민: 대학가·병원 상권 결합(식음료·서비스), 방학·시험기간·병원 스케줄에 따라 변동.

4) 역세권 주변 정보 ⁵

- 주거분포

대학 밀집 주거지: 고대생·의료종사자 대상 다가구/다세대·원룸·오피스텔 비중 높음. 성북구·서울시 주택유형 통계 기준, 성북 일대는 아파트 외에 다세대·연립 비중이 상대적으로 큰 축에 속함.

역 도보권·인근 축에 안암래미안, 대광, 삼익 등 공동주택 단지 존재.

학생 기숙사·대학 부속시설 영향권: 고려대 전 영역과 의료원 배후지 → 학기 중 임대수요·회전을 높임.

- 상권분포 및 특징 ^{6 7}

참살이길-안암오거리 축: 역 2-3 번 출구 방면 먹자골목·주점·분식·카페·PC 방/노래방 등 전형적 대학가 업종 밀집.

캠퍼스타운·스마트스트리트 조성: IoT 가로등·벤치 도입으로 보행환경·야간활력 개선. 행사·축제 때 유동 급증.

⁵ 성북구 사회적 경제 센터, 서울정보소통광장

⁶ "최재원(2018). '고대앞상권' '스마트'한 변신'. 매일경제. <https://www.mk.co.kr/news/realstate/8419218>"

⁷ "권강수(2019). '안암역상권, 100 년 역사의 고려다안암역상권'. 이코노믹리뷰. https://www.econovill.com/news/articleView.html?idxno=353810&utm_source

시간대 매출 패턴: 점심(12-13 시) 병원·캠퍼스 수요, 저녁(18-22 시) 대학가 중심 체류형 소비 증가.

· 공공·생활 기반 시설

의료: 고려대 안암병원 – 대형 상급종합병원 의료수요 충족.

교육·문화: 고려대학교(인문/사회·자연/이공), 중앙도서관·박물관 등 캠퍼스 시설 밀집.

공원·여가: 남측 배후 개운산근린공원(산마루길·운동시설·스포츠센터) – 돈암·안암·종암을 잇는 생활녹지.

· 교통 연계: 6 호선 안암역이 중심축. 보문역(응암·합정 방향)과 고려대역(신내·응암 방향) 사이 위치. 6 호선을 이용해 이태원·상수·합정 또는 왕십리·신내 등 주요 지역으로 빠르게 이동 가능. 역 출구별로 간선·지선버스가 배치되어 동대문·종로·강북·동대문구 등으로 연계 이동. 병원·캠퍼스 정류장에서 버스로 청량리역(경의중앙·KTX), 동묘앞역(1·6 호선), 성신여대입구역(4 호선) 등으로 환승 → 타 노선·타 권역 지하철 접근 용이.

5) 촬영계획

* 촬영목적: 안암역의 이용 현황과 역세권 특성을 시각적으로 보여줌으로써, 보행자 흐름·공간 활용도·시간대별 밀집도 등을 파악하고, 교통 연계성, 상권 및 주거지, 공공시설 간의 공간적 관계를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촬영대상 및 구간

① 역사

항목	촬영 포인트	촬영 목적
출입구 전경 및 안내 표지판	1~4 번 출입구, 인접 이정표	접근성, 가독성, 안내 체계 확인
개찰구 및 대합실 주요시설	개찰구,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역무실, 수유실 등	이용자 배려시설의 유무 및 상태 확인
승강장 구조	플랫폼, 스크린도어, 전광판, 열차 대기 공간	안전성, 직관적 구조, 혼잡도 관찰
역사 특이시설	편의점, 팝업스토어, 안내 디자인, 조형물 등	상업·문화적 활용성 및 체류 공간 확인

역사 전체 분위기	대합실 동선, 휴게 공간, 인파 흐름	공간 사용도 및 혼잡도 파악
-----------	----------------------	-----------------

② 역세권

구역	촬영 위치	선정 이유	촬영 내용
고려대 안암병원 앞	1번출구 앞 병원 정문	병원 이용자 흐름, 외부 유입 인구	병원 입구, 환자·보호자 이동 장면, 쉼터 및 편의시설
참살이길 상권	2·3번출구 인근 거리	생활밀착형 근린상권	점심·퇴근시간 유동인구, 상가·거리 풍경, 골목상점 외관
고밀도 주거지	4번출구~기숙사, 원룸촌	청년층 중심 단기거주지 밀집	원룸/고시원 외관, 골목길, 출퇴근 시간 보행자
공원 및 문화공간	개운산근린공원 입구 및 산책로	여가 및 주민 커뮤니티 활동	주말 오후 산책, 운동, 가족단위 활동 등

③ 교통 연계 지점

항목	촬영 포인트	촬영 목적
버스 정류장	안암역 인근 간선·지선 노선	환승 흐름, 정류장 혼잡도
자전거 인프라	자전거 보관소, 따릉이 대여소	지속가능 교통 인프라 실태
택시 승강장	고려대병원 앞, 주요 도로변	택시 수요, 대기 상황

* 시간대별 촬영계획

시간대	촬영 포인트	관찰 내용
07:30~08:30 (출근·등교)	승강장, 개찰구, 버스 정류장	승차 인파, 대기 장면, 혼잡도
12:00~13:00 (점심시간)	참살이길 상권, 병원 주변	상권 이용자, 병원 외래 유입 흐름

18:00~19:30 (퇴근·하교)	출입구, 환승 통로, 택시·버스 정류장	하차 인파, 도보-환승 흐름
주말 오후	개운산공원, 골목상점, 거리 풍경	가족 단위 활동, 지역 주민 일상

2. 현장 조사

1) 역사 내부 체험

■ 출입구 접근성

안암역의 1·4 번 출입구는 에스컬레이터와 계단이 함께 설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반면 2·3 번 출입구는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를 이용한 접근에는 제한이 있다. 2·3 번 출입구 앞에는 자전거 거치대가 있고, 특히 2 번 출구는 고려대학교 미디어대학원 앞에 위치한 따릉이 거치대와 가까운 편이다. 1·4 번 출입구는 경사도가 있는 내리막길에 위치해 있으나 거치대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자전거가 넘어질 경우 사고 위험이 존재한다.

1 번 출구에는 대합실에서 지상으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3 호기와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해 있으며, 병원 및 의과대학, 장례식장으로의 이동이 수월하다. 이는 고령자나 교통약자에게 중요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지점이다.

■ 시설 이용 편리성

역사 내부는 B1~B3 층의 구조에서 엘리베이터 3 기와 에스컬레이터가 주요 층을 연결하며 작동 상태도 양호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B2 층에는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민방위 비상용품함, 수유실, 고객안전실 등이 마련되어 있으나, 수유실과 고객안전실은 안내 표지판이나 위치가 눈에 잘 띄지 않아 접근성에 아쉬움이 있다.

청결 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으며, B1·B2 대합실 모두에 화장실이 위치해 있어 편의성을 높이고 있다. 특히 1 번 출구에서 이어지는 안암병원 에스컬레이터 주변에 내원객들을 위한 휴게정원이 조성되어 있어 쾌적한 이동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

■ 편의시설 상태

B1·B2 대합실에는 책드림 서비스, 디저트 셀프매장, GS25, 네이처리퍼블릭, 물품보관함(또타스토리지), 교통카드 발급기 및 환급기, 스마트정보게시판, 안심 i 센터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존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광고판 및 게시판이 비어 있다는 점은 활용도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이는 지역 커뮤니티 정보나 공공 캠페인 등의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이용자를 위한 광역전철 노선도, 노선별 승강장 정보, 엘리베이터 정보 등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어 전반적인 이용 편의성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체감 분위기

퇴근시간대(18:00~18:30 경)에는 유입/유출 인구의 흐름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 보문행 플랫폼에는 대학생 등 젊은 층의 유입이 많았고, 고려대행에는 직장인·중장년층의 유출이 많아 시간대별 인구이동의 패턴이 뚜렷했다. 전반적으로 역사 내부는 밝고 청결하며, 안내 표지판 또한 적절히 설치되어 있었지만, 특정 시설(수유실, 할인매장 등)은 시인성이 낮아 아쉬움이 있다. 안심 i 센터에는 역무원이 상주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2) 역세권 체험

■ 주거지 현장 모습 (건물 노후도, 생활감)

- 역에서 도보 5~10 분 거리에 위치한 주택·빌라들이 많아 지하철 접근성 매우 좋음.
- 인근에 고려대학교와 병원, 식당가 등이 형성되어 상권 및 편의시설이 생활권 안에 갖춰져 있음.
-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계획이 수립된 만큼 노후 주택이 많고 건물 밀집도가 높음.
- 1990 년대 준공되어 30 년 이상 지난 건물 多, 구조/시설이 낡은 상태
- 주차 공간이 충분치 않고 골목이 좁아 건물끼리 연접해 있는 형태가 많음.

■ 상권 분위기 (영업 정도, 전통시장 분위기)

- 2·3 번 출구 참살이길 일대는 평일 낮에 병원 이용객과 점심식사의 수요가 많고, 저녁에는 대학생과 직장인 중심으로 카페·술집·식당이 활발하게 운영
- 이용자의 연령대가 젊어서 트렌디한 카페나 프랜차이즈가 꽤 들어와 있고, 주말 저녁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활발하게 이어짐.
- 상권 자체가 대학생 및 병원 이용객에 대한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방학기간이나 주말 낮과 같은 특정 상황에 한산해지는 패턴이 뚜렷함.
- 시장이나 상가 중심의 골목상권이라기보다 원룸 및 다가구주택 사이에 소규모의 가게가 끼어 있는 형태
- 대학가 특유의 음식점·편의점·카페 등 프랜차이즈가 주력

■ 공공시설 접근성 (도보 거리, 이용 편리성)

- 병원·의료시설
 - 고대 안암병원: 안암역 1 번 출구에서 곧바로 이어짐, 2 번 출구에서 도보 5 분 정도 소요.
 - 실질적으로 역에서 바로 이어지는 동선이라 가장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에 속함.
 - 병원·약국·검진센터 등이 한 블록 내에 밀집.
- 학교·교육시설
 - 고려대학교 정문/북문: 도보 7~10 분 정도 소요.
 - 약간 경사진 지형, 평지보다는 체감거리가 더 깊.
 - 보행자 유입량이 많아 횡단보도·신호 체계는 잘 정비되어 있음.
- 공원·녹지

- 안암역 인근에 대형 공원은 없음.
- 고려대학교 내 간헐적으로 쉼터 존재, 도보 10~15 분 내 개운산 생태길 접근 가능.
- 집 앞 공원 느낌은 아님, 주거지 뒤편에 작은 완충녹지 정도가 존재.
- 행정·복지시설
 - 성북구청과는 버스로 2~4 정거장, 도보로 20 분 이상의 거리가 있음
 - 주민센터 등 소규모 시설은 안암동 5 가 생활권 내에서 이용 가능.
- 교통 연계 실제 체감 (버스 환승 편리성, 자전거 거치 상태, 보행 환경)
- 버스 환승 편리성
 - 버스정류장이 출구 바로 앞에 위치해 환승 동선이 매우 짧음.
 - 특히 2/3 번 출구 쪽 정류장은 성신여대·혜화 방향, 종암·정릉 방향, 동대문·청량리 방향 등 주요 노선이 골고루 지나감.
 - 문제는 출퇴근 시간대에 차량 정체가 심한 편, 실제 소요시간은 더 길어짐.
- 자전거 거치·따릉이 환경
 - 안암역 인근 따릉이 거치소는 충분히 확보되어 있고, 이용 수요도 높음.
 - 보행자와 자전거 동선이 분리되어 있지 않아 혼잡 시간대엔 보행자와 자전거가 끼이는 현상 발생.
- 보행 환경
 - 역 앞 골목은 보행자 우선 분위기, 도보에 불편한 사항은 없음.
 - 인도 폭은 좁으나, 상권 특성상 차량 속도가 느려 안전에 큰 문제는 없음.
 - 야간 보도환경은 양호하나, 배달 이륜차 통행이 많아 간혹 위험하게 느껴지기도 함.
 - 횡단보도는 촘촘하게 배치되어 도보 연결성이 좋음.

3) 이용 현황 관찰

■ 시간대별 혼잡도

• 출근 시간대 (평일 오전)

고려대학교 캠퍼스 및 안암병원과 안암역 역사 간의 공간 구조상 1 번 출구-병원 연결 에스컬레이터 구간에 병원 직원, 교수, 학생 등 출근·등교 인파가 집중되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 내부 승강장에서는 보문 방향(응암행)에서 유입과 유출이 모두 활발했고, 고려대 방향(신내행)에서의 유입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점심 시간대

평일에 사람들의 왕래가 활발한 반면, 주말에는 참살이길 인근 카페 및 상점 일부가 영업시간 중에도 문을 닫고 있었다. 유동인구 또한 많지 않아 점심식사 수요가 평일의 대학생 및 병원 관계자에 한정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저녁 시간대 (17:30~18:30 기준)

역사 내 B3 승강장에서 유입·유출 흐름을 관찰한 결과, 응암행은 유입과 유출이 모두 활발하고, 신내행은 유출인구가 유입인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퇴근 시간대에 도심으로부터의

유입과 고려대학교 및 안암병원 등에서의 유출이 뚜렷하게 일어남을 보여준다. 병원 후문 및 인근 상권은 이 시간대를 기준으로 점차 조용해지는 경향이 있었다.

- 주말 혼잡도

공공자전거 및 킥보드 수량이 평일에 비해 눈에 띄게 줄었고, 안암역 주변 보행자 수도 현저히 감소했다. 개운산공원이나 참살이길 등 주요 보행 공간도 낮 시간대에 매우 한산한 분위기를 보였다. 이는 대학가 및 병원 중심 상권의 주중에는 집중되고 주말에는 비활성화되는 패턴을 반영하는 현상이다.

■ 주요 이용자 층

- 고려대학교 학생

개운사길의 카페들이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는 모습과 캠퍼스 인근 공공자전거가 밀집한 모습 등을 통해 안암역 주변 공간은 고려대 학생들이 주된 이용층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직장인 및 병원 직원

병원과 의대가 역사와 직결되어 있는 구조상, 병원 및 의대 종사자의 출퇴근 수요가 매우 높다. 병원 앞 휠체어 보관소, 무료 셔틀버스 운영 등은 교통약자 및 환자들이 주요한 이용자임을 시사한다.

- 중장년층 및 지역 주민

일부 방향(퇴근시간대 신내행의 유출)에서 중장년층이 확인되었으며, 참살이길 상권 내 생활형 점포의 구성도 이들의 수요와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안암역사거리에는 병원 진료나 안과 검사 후의 수요로 안경점의 밀집이 관찰되었다.

- 가족 단위 방문자 및 관광객

개운산 및 개운사길에 산책로가 마련되어 있으나, 주말 낮 시간대 공원 이용자 수가 매우 적고, 개운사 외벽 공사 및 승가원 활동 비활성화 등으로 인해 가족 단위 방문자 유입은 낮은 편으로 판단된다.

■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

- 기능이 중첩된 복합 공간

안암역 일대는 교육(대학)·의료(병원)·상권·주거 기능이 중첩되어 있으며, 이는 특정 시간대(출근, 저녁)에 과밀한 유동이 나타나거나, 반대로 시간대에 따라 급격히 비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 주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구조

에스컬레이터 위치, 휠체어 보관소, 병원 셔틀버스 등 다양한 인프라가 대학 및 병원 관계자 중심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외부 이용자나 지역 주민을 위한 휴식 공간(벤치, 안내 표지 등)은 부족하다는 인상을 받았다.

- 단절과 연결이 공존하는 도시 공간

공간적으로는 병원, 역사, 학교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에도, 보행 동선은 단절적인 측면이 있다. 예컨대 2·3 번 출구 주변에 자전거 거치대가 존재하나 공용자전거는 무분별하게 세워져 있고, 1·4 번 출구는 병원으로의 접근은 용이하나 버스정류장과는 거리가 있다. 이는 이용자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공간의 체감 연결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구조이다.

3. 결론 (종합 분석)

■ 이 역세권의 종합적 특징

안암역 역세권은 대학(고려대학교), 병원(안암병원), 그리고 상권(참살이길 및 개운사길)이 밀집된 다기능 복합공간이다. 주거지는 상대적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나 도보 접근성과 상업·공공시설의 밀집도가 높아 도시 내 자족적 생활권으로 기능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다. 반면, 공간 이용이 특정 이용자층(학생, 병원 관계자 등)에 편중되어 있으며, 시간대별 유동 인구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비선형적 이용 패턴이 주요 특징이다.

또한 역 주변의 보행 환경, 교통 연계성, 편의시설 등의 이용 편의성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일부 공간(공용자전거 전용 거치대 부재, 특정 출구의 접근성 문제 등)은 관리 미흡과 물리적 한계가 혼재해 이용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 특정 방향(신내행)에서만 유입 및 유출이 집중되는 흐름 역시 도시공간의 연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다른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성

안암역 역세권은 서울의 대표적인 역세권(강남역, 홍대입구역, 명동역 등)과 비교할 때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갖는다.

· 특화된 기능 중심의 역세권

강남역이나 명동역이 복합상업·업무지구로 작동하는 것과 달리, 안암역은 ‘교육+의료’를 핵심축으로 한 특화된 유동 흐름을 보인다.

· 이용자 편중과 상권 의존도

소비 활동 및 공간 이용이 고려대학교 학생과 병원 관계자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특정 집단의 스케줄 변화(방학, 야간, 주말 등)에 따라 유동인구가 크게 위축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 분산형 생활상권 구조

전통시장을 기반으로 한 밀집형 상권과 달리, 원룸·다가구 주택 사이에 소규모 점포가 흩어져 있고 거리의 정체성과 콘텐츠 전략이 부족한 편이다.

■ 향후 변화 가능성

안암역 역세권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변화 가능성이 존재한다.

· 재정비 및 도시재생 잠재력

노후 주거지의 정비 및 공실 활용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 지역 정주성 향상과 새로운 인구 및 상권의 유입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 상권 구조의 재편 가능성

학생 의존형 수요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한 상권 다변화 전략(지역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관광·문화 콘텐츠 확충 등)이 실현된다면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

· 교통 및 접근성 개선 여지

자전거와 보행자 간 동선 충돌, 일부 출구의 환승 불리 문제, 안내 체계 미비 등은 정책적 개입을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큰 요소이다.

조사대상	고려대역	작성자	차보연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

역명	고려대(종암)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지하1 (종암동 29-18)
개통 연도	2000.12.15
면적	승강장 면적: 2425.38, 대합실 면적: 5721.2
역명 변천 및 유래	1991년: 종암(고려대앞) - 법정동 이름(종암동)에서 따온 명칭이며 종암이라는 명칭은 고려대학교 뒷산에 종처럼 생긴 큰 바위가 있는 마을이라고 부른 것에서 유래되었다. ¹⁾ 1995년: 고려대(종암) - 역사부지 일부가 고려대학교 부지(평생교육원)에 위치하여 주역명과 병기역명이 바뀌었다. ²⁾

2) 역사 내부 정보

① 출구 정보

6개의 출구로 이루어져 있으며, 출구마다 주요 연결 시설은 다음과 같다.

1번 출구	고려대학교
2번 출구	종암중학교, 송례초등학교, 성북서울요양병원, 고려대역삼거리
3번 출구	서울사대부설중·고등학교, 종암동우체국, 한국국방연구원, 국립산림과학원, 성북중앙병원
4번 출구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교육원, 세종대왕기념관, 제기동한신희플러스아파트
5번 출구	홍파초등학교, 홍파초교사거리, 정화여자중학교, 서울정화고등학교, 제기파출소
6번 출구	고대앞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1번 출구는 고려대역과 고려대학교 평생교육원(라이시움)을 연결해주는 매개체이다. 따라서 1번 출구로 나오게 되면 고려대학교 건물로 바로 진입할 수 있다. 2번 출구를 나와서 가장 먼저 마주할 수 있는 것은 고려대역 삼거리이다. 삼거리에서 위쪽으로 가면 성북서울요양병원을 마주할 수 있으며 여기서 좌측으로 가면 종암중학교를, 더 위쪽으로 올라가면 송례초등학교를 보게 된다. 3번 출구를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고려대역 삼거리에서 우측으로 가면 순서대로 한국국방연구원과 국립산림과학원을 볼 수 있다. 위쪽의 갈림길에서 좌측으로 가면 종암동 우체국과 성북중앙병원을, 우측으로 가면 서울사대부설중·고등학교가 나타난다. 4번 출구를 나와 정릉천을 건너가면 제기동한신희플러스아파트가 있고, 뒤쪽으로 경희사이버대학교 사회교육원과 세종대왕기념관을 찾아볼 수 있다. 5번 출구에서 쪽 내려와 홍파초교 사거리에 도달하면 홍파초등학교와 정화여자중학교, 서울정화고등학교가 나타난다. 서울정화고등학교 뒤로 제기파출소도 확인할 수 있다. 6번 출구는 식당과 카페가 대부분이지만 그 골목 사이로 고대앞마을

1) [비짓서울 홈페이지 “5678도보여행-6호선 고려대역”](#)

2)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여행 “\[지하철/광역전철 역사 탐방\] 고려대 모퉁이에 자리잡은 - 서울 6호선 고려대역](#)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위치한다.

② 내부 구조 및 시설

총 지하 4층 (심도 31m)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승강장은 지하 4층에 설치되어 있다. 승강장 형태는 상대식 승강장으로 상·하행 승강장 사이에 선로가 놓여서 양방향 승강장이 분리된 형태이다. 따라서 승하차 시 건너편을 마주 보고 승하차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용객으로서 승하차 시 양방향 승객과 동선이 꼬이지 않아 양방향 승강장이 하나의 승강장을 이용하는 섬식 승강장보다 비교적 혼잡하지 않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나 양방향 승강장이 분리되어 있어 반대편 승강장을 이용하려면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해 올라가고 다시 내려와야 한다는 불편함이 따른다. ³⁾

대합실은 지하 1층과 지하 3층에 위치한다. 전체적으로 깊게 지어진 6호선의 특성으로 인해 승강장 바로 위층인 지하 3층이 존재한다. 지하 3층은 별다른 수익 목적시설은 없으나 고려대역이 경전철 동북선과의 환승을 위한 공사를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해당 층이 환승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하 1층 대합실에는 편의점을 비롯한 소수의 수익 목적시설이 자리하고 있다. 특이사항으로는 게이트 외부에 화장실이 위치한 대부분의 역과 달리 게이트 내부에 화장실이 위치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이는 게이트 외부 공간보다 게이트 내부 공간이 더 넓어 화장실을 안쪽에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넓은 내부 공간의 이점을 활용하여 화장실 우측으로는 파우더룸 또한 설치되어 있다.⁴⁾ 승강장 뿐만 아니라 모든 대합실 층마다 엘리베이터가 존재하여 교통약자의 이용을 편하게 하였고, 역 내에는 자전거 이동 경사로와 사물함형 자전거 보관함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해 지하철역까지 오는 이용객들도 편하게 자전거를 맡겨두고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다. 자전거 보관함은 교통카드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간편하게 등록 후 이용할 수 있다. 보관함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모든 자전거는 개별 잠금 시스템과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 보관되므로 안전하게 자전거를 두고 대중교통으로의 환승이 가능하다.⁵⁾

3) 이용 현황

다음은 2025년 8월 기준 고려대역의 1일 시간대별 이용객 수이다.

	06~11시	11~16시	16~20시	20~24시	합계
승차	3,037	1,916	2,785	722	8,460
하차	2,516	1,384	2,385	1,472	7,757

전반적으로 하차 인원보다 승차 인원이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통상적인 출근 시간대인 06시부터 11시까지는 가장 많은 인원이 승차하는 모습을 보이며 08시부터 09시까지의 이용객은 1,066명으로 하루 평균 가장 많은 인원이 이 시간대에 승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려대역 주변에는 식당이나 카페와 같은 상권도 발달해있지만, 3번 출구와 4번 출구의 상권 뒤편으로는 대형 아파트 단지가 있으며 그 옆으로 주택가가 발달 되어있다. 거주공간이 크게 형성됨에 따라 주변에는 학교나 어린이집과 같은 교육 시설도 다수 위치한다. 거주지역이 많

4) [철도산업정보센터 철도여행 "\[지하철/광역전철 역사 탐방\] 고려대 모퉁이에 자리잡은 - 서울 6호선 고려대역](#)

5) [황수민. 20250730. '자출족' 환영! 6호선 고려대역, 사물함형 자전거 보관함 설치 현장. 내손안에서울](#)

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출근을 하기 위한 용도로 지하철을 이용하는 인원이 다수일 것이며, 그렇기에 오전 시간대에는 하차 인원보다 승차 인원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저녁 시간인 20시부터 24시까지는 승차 인원보다 하차 인원이 더 많다. 이러한 현상은 오전 시간과 반대의 양상을 보이지만 마찬가지로 다수의 거주지역 분포로 인한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6시에서 20시까지의 이용객도 전체적으로 합산하면 승차 인원이 하차 인원보다 더 많다. 16~20시 사이 보편적인 퇴근 시간인 18시부터는 승차 인원이 785명, 하차 인원이 819명으로 하차 인원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 아침 시간에는 출근을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던 인원들이 저녁 시간이 되자 다시 자신의 거주지역으로 돌아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언급했듯, 고려대역 주변에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지만, 고려대학교 캠퍼스 지하에 있는 1번 출구를 비롯해 2번 출구와 6번 출구는 고려대학교 바로 앞에 위치한다. 따라서 거주민뿐만 아니라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이용률도 높다. 연령대로 말하자면, 3040 직장인뿐만 아니라 20대 학생 이용객도 적지 않으며 비교적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객들이 고려대역을 이용하고 있다.

4) 역세권 주변 정보

① 주거 및 상권 분포

고려대역 주변은 상권이 크다고 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학교 근처를 중심으로 발달 되어있고 그 뒤로 주거 지역이 넓은 부분을 차지한다. 3번 출구 바로 앞에는 학교와 가깝고 역세권에 위치한다는 이점을 가진 299세대 규모의 청년 주택이 있다. 여러 빌라 또한 주택과 마주보는 위치에 세워져 있다. 4번 출구로 나와 새섬다리를 이용해 정릉천을 건너면 총 12개 동, 25층, 1,07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건너편 또한 다수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주거단지 안팎으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세워져 있으며 대학교뿐만 아니라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도 세워져 있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공인중개사 사무소와 학원, 복지센터가 주변 시설로 자리 잡고 있다. 아파트 말고도 고시원이나 원룸과 같은 비교적 소규모의 주거형태도 위치한다. 해당 주거단지들이 위치한 아파트 바로 옆 라인은 재개발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기도 하다. 102동 옆의 제기동 120-104번지 일대는 제기제6구역으로, 그보다 위쪽인 109동과 112동 옆에서부터 제기제6구역 옆까지는 청량리동 205번지 일대 청량리제6구역으로 지정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구역이다. 두 구역 모두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공동주택과 생활 편의를 위한 소규모 상업 시설 등이 건축될 것으로 계획되어 있다.

상권은 5번 출구와 6번 출구 사이에 주로 형성되어 있어, 대체로 고려대학교 캠퍼스 건너편 라인에 다수 포진해있다. 특히, 6번 출구 근처는 고려대학교 모두의 거리라는 이름이 뜰만큼 학생들을 위한 상업 시설들이 모여있다. 주된 이용층이 대학생인 만큼 저가 커피 브랜드와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가 있고 출력 및 제본을 위한 프린트 카페와 셀프 빨래방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음식점은 대체로 만원을 넘지 않거나 만원 초반 가격대인 식당들이 있으며 여러 브랜드의 편의점도 군데군데 자리 잡고 있다.

② 연계되는 교통시설

고려대역 인근 재개발사업구역 ▶



◀ 고려대역 근처 버스정류장

고려대역은 환승역이 아닌 6호선만 지나다니는 역으로 다른 지하철 노선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지만, 버스를 통해 다른 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3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고려대역 3번 출구 정류장이 위치한다. 해당 정류장으로는 삼선동주민센터 방면 성북20 마을버스와 길음역 방면 성북21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성북20은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을 지나며 성북21은 4호선 길음역을 지나는 버스로 해당 정류장의 버스들을 통해 4호선 지하철의 이용이 가능하다. 4번 출구 앞에는 송례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는 고려대역.고대앞삼거리 정류장이 있으며 해당 정류장으로는 110B국민대·121·130·141·148·1213·3216 버스들이 정차한다. 해당 정

류장의 반대 방향인 홍파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는 정류장은 5번 출구에서 직진하면 나타난다. 반대 방향 정류장에는 110A고려대·121·130·141·148·1213·1222·2222 버스들이 정차한다. 캠퍼스 바로 앞에 있는 고대앞 정류장은 1번 출구 근처에 위치한다. 101·111·144·173·273·1017·1111·1112·7211 버스들이 해당 정류장을 지나간다. 반대 방향인 고려대학교앞 정류장은 6번 출구 방향에 있으며 101·111·144·173·273·1017·1111·1112·2222·7211 버스들이 해당 정류장을 지나간다.

버스정류장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정차 버스)
고려대역3번출구	4호선(성북20·성북21), 우이신설선(성북20)
고려대역.고대앞삼거리(송례초등학교 방면)	1호선(141·3216) 4호선(110B국민대·121·130·148·1213) 7호선(141) 경의중앙선/경춘선(3216) 우이신설선(110B국민대·121·130·1213)
고려대역.고대앞삼거리(홍파초등학교 방면)	1호선(110A고려대·121·130·141·148·1213·1222·2222) 2호선(110A고려대·121·130·141·148·2222) 3호선(110A고려대·141·148) 4호선(110A고려대) 5호선(110A고려대·121·130·141·148·2222) 7호선(130·141·148·1213·2222) 8호선(130) 9호선(141·148) 신분당선(148) 경 의 중 앙 선 / 수 인 분 당 선 (1 1 0 A 고 려 대·121·141·148·1213·1222·2222) 경춘선(121·1213·1222)
고대앞	1호선/2호선(101·111·144·173·273·1017·7211) 3호선(101·144·173·273) 4호선(101·111·144·173·273·1111·1112) 5호선(101·144·173·273) 7호선(144) 경의중앙선/공항철도(173·273) 신분당선(144) GTX-A(173) 우이신설선(101·111·144·173·273·1017·1111·1112·7211)
고려대학교앞	1호선(111·173·273·1017·1222·2222) 2호선/5호선(2222) 3호선/GTX-A(7211) 4호선(101·111·144·1112·7211) 7호선(111·273·2222) 경춘선(173·273·1017·1222·2222) 경의중앙선(273·1222·2222) 수인분당선(1222·2222) 의정부선(111) 우이신설선(101·144·1112·7211)

다음 표는 고려대역 주변 버스정류장과 해당 정류장에서 승차한 버스를 통해 연결되는 지하철 노선과 각 노선을 포함하고 있는 버스들을 정리한 것이다. 마을버스만 지나가는 고려대역3번출구 정류장을 제외한 4개의 정류장은 모두 다수의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으로 다양한 방향으로 이동한다. 송례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는 고려대역.고대앞삼거리 정류장은 대부분 위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4호선 길음역-미아사거리역-미아역-수유역-쌍문역 구간 전체를 버스를 통해 이동할 수 있다. 나아가서 1호선 방학역-도봉역-도봉산역 구간에도 도달할 수 있으며 근처 지역인 우이신설선 정릉역, 북한산보국문역, 삼양사거리역, 삼양역, 화계역, 북한산우이역도 갈 수 있다. 반대로 홍파초등학교 방면으로 가는 정류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정류장보다 다양한 지역으로의 이동이 가능하다. 버스가 지나가는 지역 중 동대문구 지역인 제기동역, 청량리역, 회기역, 외대앞역은 모두 1호선으로 환승 가능하다. 해당 정류장에 정차하는 2호선으로의 환승이 가능한 버스는 용두역을 지나 왕십리역을 지나간다. 강남과 서초로 가는 버스들을 이용할 시에는 3호선 압구정역, 신사역, 고속터미널역, 매봉역과 7호선 강남구청역, 학동역, 논현역, 반포역과 9호선 구반포역, 신반포역, 선정릉역 이용이 가능하다. 7호선 건대입구역-어린이대공원역-군자역 라인과 5호선 마장역-답십리역-장한평역-군자역-아차산역-광나루역-천호역-강동역-길동역 라인 또한 버스에서 지하철로의 환승이 가능하다. 고대앞 정류장에서는 종로1~6가까지 이동할 수 있으며 서대문구 쪽으로 운행하는 버스들을 통해 2호선 충정로역-아현역-이대역-신촌역과 마포구에 있는 공덕역, 홍대입구역도 환승 가능하다. 고려대역보다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지역은 2호선 을지로4가역-을지로3가역-을지로입구역-시청역과 앞서 언급했던 강남과 서초 일대가 있다. 반대 방향인 고려대학교앞 정류장은 고대앞 정류장과 반대로 위쪽으로 가는 버스들이 지나간다. 노원구 방향으로 1호선 석계역-광운대역-월계역과 7호선 중계역-노원역-마들역-수락산역까지 버스를 통해 환승이 가능하다. 정릉역-북한산보국문역-솔샘역-삼양사거리역-삼양역-화계역-가오리역-4.19민주묘지역-솔밭공원역-북한산우이역까지 다수의 우이신설선 역으로도 환승 가능하다. 이외에도 은평구 방향으로 불광역, 연신내역, 구파발역도 지나가며 의정부시까지도 지나가 장암역과 탑석역까지도 이용할 수 있다.

5) 촬영계획

①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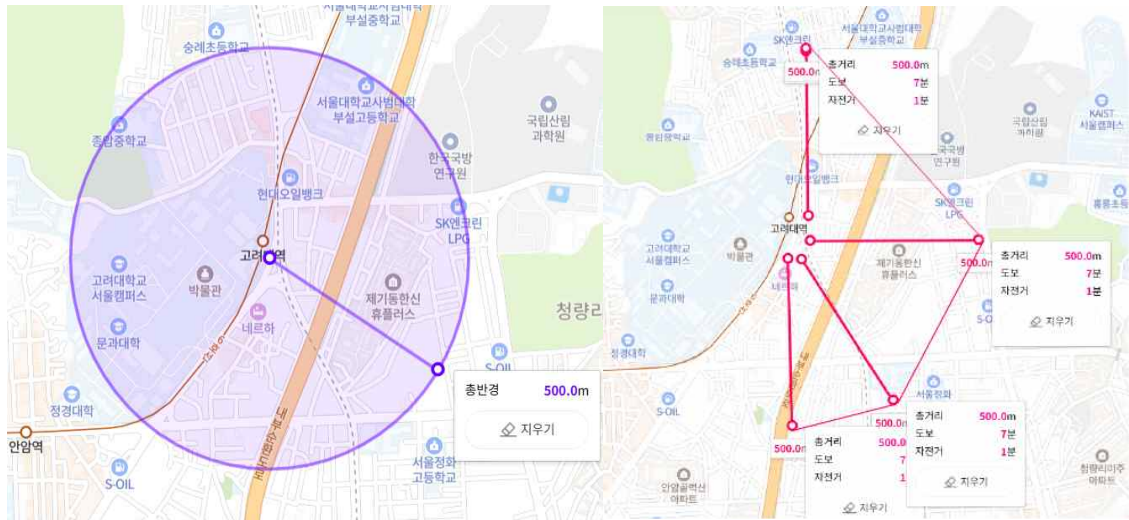
역사 외부 1번부터 6번까지의 출입구의 모습을 촬영한 뒤 역사 내부로 들어가는 길도 사진으로 기록한다. 에스컬레이터의 여부와 사전 조사했던 자전거 이동 경사도가 실제로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면 이 또한 사진으로 기록한다. 역사 내부에 들어가서는 역이용 및 비상 대피 안내도를 촬영한다. 개찰구를 촬영하고 몇 개의 개찰구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개수를 기록한다.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의 위치 및 개수도 확인한다. 이외에도 고객 안전실과 화장실, 수유실을 촬영한다. 승강장이 지하 4층에 있는 만큼, 가는 과정을 기록하고 사전 조사를 토대로 상대식 승강장 방식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한다. 상대식 승강장 방식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스크린도어 반대편이 벽면일 것이다. 벽면에 그려져 있는 역명판과 선로 내부에 있는 역명판도 촬영한다. 승강장과 대합실에 설치된 쓰레기통 또한 이용객의 편의에 영향을 끼치는 요소이므로 위치와 개수를 확인한다. 역사 내부에는 소수의 수익 목적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고 조사했으니 실제로 어떤 상점이 들어와 있는지 확인하고 사진으로 기록한다. 역사 내부에 다른 역과는 차별성을 가지는 디자인적 요소가 있는지 찾아보

고 발견한다면 촬영한다. 역사 내부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멀리서 전체적인 모습도 사진으로 담는다. 고려대역의 1일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통해 시간대도 역사 이용률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붐비는 시간인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 두 시간대를 제외한 비교적 한적한 시간에 방문해 시간대별 차이점을 직접 확인하고 기록한다. 출퇴근 때문에 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은 평일과 비교적 휴일인 사람이 많은 주말 또한 시간대별 이용객 수의 차이점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날짜를 구분해서 촬영한다.

② 역세권

역세권의 사전적 의미는 기차나 지하철역을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분포하는 범위이다. 고려대역은 역 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주거단지가 형성되어 있다. 해당 주거단지를 모두 아우르면서도, 거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반경 내의 주변 시설까지를 고려대역의 역세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역세권은 통상적으로 500m 반경 내의 도보로 5~10분 안팎인 지역을 칭하므로 지도상 반경 500m까지의 지역을 측정하였다. 추가로, 고려대학교 캠퍼스 바로 앞에 있어 반경 500m까지의 지역이 전부 고려대학교 캠퍼스 내부인 1번과 2번 출구를 제외한 3·4·5·6번 출구로부터 직선을 그어 500m가 되는 지점을 찍어서 연결한 역세권을 형성하였다. 편의상 고려대역 교차로 내에 있는 5번 출구는 교차로를 포함하기 위해 교차로 사이로 대각선을 그어 측정하였다.

고려대역 주변 거리의 모습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교차로를 촬영한다. 2번 출구와 3번 출구 근처 고려대역 삼거리, 4번 출구와 5번 출구 사이 고려대역 교차로와 횡단보도 위치를 기록한다. 넓은 주거지역으로 진입하는 길인 새섬다리와 다리 밑으로 흐르는 정릉천도 거리의 전경으로 기록한다. 역세권 내의 상점 분포와 주거단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진도 촬영한다. 고려대역 인근의 가장 큰 아파트 단지였던 제기동한신휴플러스아파트와 역 바로 옆에 있는 청년 주택인 리스트안암의 단지 전경을 촬영한다. 두 주택을 중심으로 위치한 상업 시설도 촬영하여 해당 주택들이 가지고 있는 이점들이 무엇일지 파악해본다.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제기제6구역과 청량리제6구역의 거리 모습을 촬영하면 해당 거리가 왜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지정된 것인지도 유추해볼 수 있다. 고려대학교 앞쪽으로는 저가 커피 브랜드와 무인 카페, 스터디 카페, 프린트 카페 등 학생들을 위한 상업 시설을 촬영하면서 실제로 많은 학생이 이용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거리 곳곳에 쓰레기통이나 벤치 같은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시설이나 구조물이 있는지 확인하고 환경상태 또한 전반적인 거리의 모습을 촬영하여 기록한다. 이를 토대로 고려대역 역세권이 가지고 있는 특징과 역세권 내부 시설을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 전반적인 지역의 분위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2. 현장 조사

1) 역사 내부 체험

① 출입구와 내부 시설

사전에 조사했던 대로 현장에서 가장 먼저 찾아본 것은 6개의 출입구였다. 6개의 출구 옆에는 모두 각 출입구의 번호와 고려대역 번호인 640, '고려대(종암)'이라는 주역명과 병기역명이 모두 표기되어있는 기둥이 세워져 있었다. 내부에 조명이 있는 기둥이어서 해가 지고 난 저녁 시간에 갔을 때도 출입구의 기둥을 멀리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6개의 출입구는 계단과 에스컬레이터가 고루 설치되어 있다. 2번, 3번, 5번 출입구는 계단이 설치되어 있었다. 깊게 지어진 6호선의 특성상 계단이 많은 편이긴 하였으나 앞서 언급한 3개의 출입구를 제외한 1번, 4번, 6번 출구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서 계단 이용이 불편한 탑승객들의 출입이 가능하다. 에스컬레이터로의 이용도 어려운 휠체어나 유모차 동반 탑승객은 엘리베이터의 이용이 가능하다. 지상에는 1번 출구 근처, 3번과 4번 출구 사이에 엘리베이터가 하나씩 설치되어 있다. 해당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1층 대합실로 이동할 수 있다. 지하 1층에는 지상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2대와 지하3층, 지하 4층과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2대로 총 4대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지하 3층과 지하 4층에는 모두 지하 1층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가 2대씩 설치되어 있다. 고려대역에서는 자전거에서 지하철로도 환승이 가능하다. 4번 출구 앞에는 자전거를 세워둘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있고, 2번 출구에는 계단 양 사이트에 자전거 이동 통로가 존재한다. 자전거를 끌고 지하철 역사 내부로 진입할 수 있으며, 역사 내부로 들어와서는 자전거 이동 통로가 설치된 2번 출구 나가는 곳 근처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함에 이용료를 지급하고 자전거를 보관해둘 수 있다. 자전거 보관함 옆에는 물품 보관함도 같이 있어 짐이 많은 이용객도 마찬가지로 이용료를 지급하고 짐을 보관할 수 있다. 물품 보관함은 3가지 크기로 나뉘어있어 용도에 따라 사용하면 된다. 지하 1층 개찰구 외부에는 편의점과 꽃집, 장소 대여 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상업 목적 공간은 3가지가 전부여서 크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 꽃집은 늦은 시간에도 영업 중이었으나, 맞은 편에 있는 편의점은 영업시간임에도 영업 중이지 않았고 폐점 최저가 SALE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는 편이었는데, 이는 영업 중인 것

▲ 고려대역 역세권 (반경 500m) ▲ 고려대역 역세권 (1,2번 출구 제외 반경 500m)

대여하는 곳이고, 비용은 시간당 1만 원대였으며 사전에 예약해야 이용할 수 있다. 곳곳에서 미적 요소도 확인할 수 있다. 3번 출구 나가는 곳으로 향하는 방향에는 사진 액자가, 지하 3층 한쪽 벽면에는 그림 아트가 설치되어 있다. 1번 출구 나가는 곳 방향에는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원형 벤치와 1인용 벤치가 조경 시설과 함께 설치되어 있다. 개찰구 내부에 있는 화장실 내부에도 칸마다 소형 사진 액자가 걸려있다. 앞에는 위생용품 자판기와 SOS 요청 버튼이 설치되어 있고, 옆에는 파우더룸이 마련되어있다.

② 안전시설 및 표지판

앞서 역사 내부 화장실 옆에는 파우더룸이 마련되어있다고 했는데, 파우더룸 내부에는 피팅룸도 있다. 피팅룸이 있는 만큼 파우더룸 앞에는 24시간 CCTV 촬영 중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있다. 자전거 보관함과 물품 보관함이 위치한 곳은 도난의 위험성이 존재하는 만큼 24시간 CCTV 촬영 중이라는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있어 이용객들이 안심하고 보관할 수 있다. 개찰구 바로 옆에는 비교적 깊숙이 위치 해있는 고객 안전실과 별도로 안심센터가 있어 이용객들의 불편사항을 바로 접수할 수 있다. 지하 3층은 동북선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안내 배너가 세워져 있다. 동북선 공사로 인해 비어 있어 많은 시설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표지판과 함께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충전 시설이 마련되어있다. 지하 4층 승강장에도 안전시설은 꼼꼼하게 설치되어 있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벽면에는 “위험! 뛰지 마세요!” 문구가 부착되어있고, 승강장 곳곳에는 비상인터폰이 설치되어 있다. 승강장 벤치 벽면에는 지하철 이용 안내를 그림으로 설명한 안내문과 역내 무질서 행위 단속 안내문이 부착되어있어 지하철 이용객들의 질서 있는 지하철 이용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 음료와 커피 자판기 및 분리수거 가능 쓰레기통의 설치로 이용객의 편리성을 높였으며, 소화전 및 화재 시 구호 용품 보관함이 설치되어 안전성 또한 보장한다. 소화전 및 구호 용품 보관함은 지하 3층에도 설치되어 있다. 역이용 및 비상대피안내도는 전 층에 부착되어 이용객들의 접근성이 쉽도록 설치되었다. 전반적으로 역사 내부가 넓고 쾌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안내 표지판은 곳곳에 적재적소 배치되어 있었고, 장애인을 위한 시설도 다수 존재하는 듯했다. 역이 넓고 깊어 승강장까지 가는 데에 시간이 걸린다는 단점도 있지만,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가 다수가 존재해 이동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승강장은 천장이 높고, 돔 형태로 되어있어 폐쇄된 공간이지만 비교적 개방감이 느껴졌다.

2) 역세권 체험

① 주거 구역

역에서 가장 가까운 주택은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리스트안암’이다. 실제로 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눈에 보인 건물이었다. 해당 주택은 299세대 규모의 청년주택으로 초역세권에 위치한다는 장점을 지닌다.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면서 횡단보도만 건너면 고려대학교 캠퍼스 건물이라는 점에서 대다수의 거주 희망자가 고려대학교 학생들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밖에서 바라봤을 때, 건물 외적으로 낡은 부분은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신축 오피스텔의 외관과 흡사했다.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은 2등급, 녹색건축인증은 그린 4등급이라는 인증 동판이 벽면에 붙어있다. 입주민 출입구와 상가동 출입구가 별개로 존재해 입주민 보안은 괜찮은 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고려대학교 바로 앞인 6번 출구 근처 골목에는 고시원 및 원룸이 다수가 존재했다. 정릉천 건너편에는 규모 1,070세대의 ‘제기동한신휴플러스’ 아파

트가 있다. 역세권 중 가장 큰 아파트 단지이며 정릉천이 근처에 위치한다는 점에서 거주민들이 편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산책과 러닝을 즐기는 시민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요새 나오는 신축 아파트와 비교해보면 비교적 노후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베란다 구조가 예전 아파트의 모양이었고 아파트 입구 또한 현재의 트렌드와는 거리가 있어 보였다. 아파트 건물뿐만 아니라 상가 건물도 노후해 보였지만 단지종합안내도를 확인해보니 지하주차장, 주민운동시설, 유치원, 상가, 놀이터와 같은 주민편의시설은 모두 존재했다. 아파트 정문 앞에는 우편물 보관함과 의류 수거함도 존재했다.

청량리6주택재개발 구역은 제기동한신희플러스 아파트 바로 옆에 위치한다. 위치는 바로 옆이었지만 아파트 단지는 높은 담벼락 위에 있어서 재개발 구역의 주택들은 모두 햇빛이 잘 들지 않았다.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보이는 풍경이 노후 주택과 대형 아파트 단지라는 점이 이질적으로 느껴지기도 했다. 청량리6주택재개발 구역은 휠체어나 보행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다수 거주했다. 집 앞에 전동휠체어를 두고 있는 집이 많았으며, 때로는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기도 했다. 전동휠체어만 그런 것은 아니었으며 오토바이도 아무렇게나 주차되어 있었다. 그래서 보행에 방해된다고 느껴지기도 했고, 이러한 문제로 불편을 호소하는 주민도 있었다. 층높이가 낮고 벽면 페인트칠이 벗겨진 노후 주택이 다수 포진해있었으며, 판자를 세워 가려놓은 곳도 있었다. 폐가전도 곳곳에 있었지만, 공가라고 보이는 집은 별로 없었으며 대체로 사람이 거주하는 느낌이었다.

제기6주택재개발 구역은 청량리6주택재개발 구역과 비교했을 때, 훨씬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구역이었다. 공가라는 경고문이 붙어있는 주택이 대다수여서 거주하는 사람보다 빈집이 훨씬 더 많은 듯했다. 두 골목을 모두 돌아다녀 봤을 때, 확실히 제기6주택재개발 구역이 청량리6주택재개발 구역보다 지나다니는 사람이 현저히 적었다. 이사를 위해 집 안의 짐을 모두 빼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대부분의 집집이 문 앞에 대형 폐기물 배출 스티커를 붙인 폐가전이 존재했고, 앞서 본 재개발 구역보다 전반적으로 거리에 쓰레기가 훨씬 더 많았다. 거리에는 제기제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개시해놓은 이주개시 및 세입자 안내문이 부착되어있고, 이주관리센터도 존재한다. 이주관리센터 앞에는 25년 12월 22일까지라는 이주 개시기간이 부착되어있다. 이주 개시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더 사람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② 상권 구역 및 공공 시설

고려대역 근처는 상권이 크게 발달 되어있지는 않은 듯했다. 소수의 식당이 골목에 밀집되어 있으나 오히려 주거 구역이 더 많아 보였고, 영업 중인지 미지수인 곳도 다수였다. 학생들을 위한 스터디카페도 있었지만, 골목에 있어 접근성은 좋지 않았다. 상권 구역이지만 주거 구역이 다수여서인지 셀프빨래방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 실제로 관찰해보니 상권은 크게 발달하여 있지 않지만, 역세권 안에 병원, 복지시설, 경찰서, 문화공간, 공동체 시설과 고려대학교를 제외한 학교가 모두 존재한다. 전부 도보로 10분 이내 거리에 있어 고려대역에서의 접근성도 괜찮은 편이다. 도보로 갈 수 있는 시설 중 공공시설로는 성북서울요양병원, 서울중앙경찰서교통센터, 고대앞마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성북여성취업교육센터가 있다. 학교는 서울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와 홍파초등학교가 있으며 마을이음터, 성북거점형 우리동네키움센터와 같은 복지시설도 있다. 그 외에 종교시설인 성북중앙교회와 한국국방연구원, 서울청년센터 성북과 같은 복합공간이 있다. 병원이나 경찰서는 대로변에 있어 한눈에 찾아볼 수 있으나, 일부 복지시설은 골목 깊숙이 위치해 지도를 보고 찾아가지 않으면 찾아가기 어렵

다. 행여나 도보로 가기에는 거리가 있는 장소더라도 모든 출구마다 근처에 버스 정류장이 위치하므로 이동의 제약은 없는 편이다. 고려대역 3번 출구 정류장에서는 마을버스를, 그 외의 정류장에서는 지선버스와 간선버스 모두 이용할 수 있다. 출구 옆에는 따릉이 대여 공간과 자전거 거치 공간이 존재하므로 대중교통 외의 교통수단도 가능하다. 골목을 제외한 대로변은 인도도 넓은 편이어서 보행에도 불편함은 없었으나, 곳곳에 공사가 진행 중인 부분이 있어서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존재했다.

3) 이용 현황 관찰

사전 조사 과정에서 알아봤듯 평일 오전 시간이 가장 붐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보편적인 출근 시간인 평일 오전 8시에 방문했을 때, 지하철 칸이 꽉 찰 정도로 혼잡하지는 않았으나 다른 시간대에 비해 사람이 확연하게 많다는 것은 느껴졌다. 대체로 1교시 수업이 9시인 대학교 특성상 해당 시간대에도 대학생이 이용객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교적 주요 건물인 정경대학, 문과대학, 자연계 캠퍼스, 의과대학 건물은 모두 안암역과 가까워서 대학생 이용객이 분산되기도 하고, 역사 대합실 자체 공간이 넓어서 아침 출근 시간임에도 혼잡하다는 느낌은 없었다. 병원 및 공공 기관도 곳곳에 있어서 직장인도 종종 보였다. 아침 출근 시간에는 학생과 직장인이 주요 이용자층이었으며 연령층은 20~40대로 추정된다.

평일 저녁 7시 이후에 방문했을 때는 역사 내에 사람이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이였다. 보편적인 퇴근 시간이 18~20시여서 해당 시간대에도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로 관찰한 결과 혼잡한 느낌은 전혀 없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용객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21시가 넘어서부터는 사람 때문에 역사 내부를 촬영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이용객이 적었다. 이용객이 적어서 하나의 이용자층만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았지만, 해당 시간대에도 주요 이용객은 대학생이었다. 대학생이 이용객 대부분을 차지했고, 소수의 65세 이상으로 추정되는 노년층 이용객이 관찰되었다.

주말 낮 2시에 방문했을 때는 혼잡하지는 않지만, 사람이 결코 적다고 할 수는 없을 정도의 모습이였다. 평일 오전보다는 이용객이 적고, 평일 오후보다는 사람이 많은 정도였다. 주말임에도 주를 이루는 이용객은 대학생이었으나 비교적 평일보다 다양한 연령층의 이용객을 볼 수 있었다. 외국인 관광객과 거주민으로 보이는 중장년층 이용객도 있었으며 학생, 직장인, 가족단위의 이용객이 관찰되었다. 고려대역은 고려대역 교차로를 기준으로 한쪽은 학교가 크게 자리 잡고, 한쪽은 주거 구역이 밀집되어 있다. 서로 다른 성격의 구역들이 혼재해서 더욱 다양한 연령층과 이용자층이 나타나는 듯하다.

3. 결론 (종합 분석)

고려대역이라는 이름만 보면 고려대학교 학생들만 이용할 거 같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고려대역 역세권은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간이라고 할 수 있다. 출구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도 다르다. 1번 출구와 2번 출구는 고려대학교 캠퍼스 바로 옆에 붙어있어서 학생들이 지하철역에서 바로 학교로 이동하기 쉽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고려대역은 다른 역에 비해 학교와의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3번 출구와 4번 출구는 고려대학교 건너편에 위치해 주거 구역과 근접한 편이다. 특히 대로변에 있는 청년주택을 시작으로 뒤쪽 골목에는 작은 주택들이 밀집해있다. 곳곳에 공공시설이 있고, 교차로들이 이어져 있어 다양한 방향으

로 이동할 수 있다. 3번 출구를 기준으로 위쪽으로 가면 학교와 연구소로도 이어진다. 두 출구 방향의 정릉천을 건너가면 대규모 주택단지로도 갈 수 있다. 따라서 3번과 4번 출구는 주거 구역으로의 효율적인 이동이 가능하고, 위쪽 역세권으로 더 멀리 갈 수 있는 기점이 된다. 5번 출구와 6번 출구는 상권 밀집 구역과 접해있는 출구로 여러 카페와 청년을 위한 주거 공간이 자리한 골목이 연결되면서 주요 이용객인 대학생들의 편리성을 높여준다. 특이한 점은 여러 출구 근처에 주유소가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고려대역이 위치한 거리는 교차로들이 사거리와 삼거리로 이어지면서 차도가 상당히 넓다. 그래서 이곳을 지나는 차량 대수도 꽤 많은 편인데 주유소가 근처에 여러 군데 있어서 오래 주행 중인 차량이라면 잠시 쉬어가기에도 좋은 곳이다. 그러나 단점이라면 교차로의 전반적인 부분을 동북선 공사 현장이 차지하여서 보행 시 공사 소음이 상당하다. 소음은 상당하지만, 동북선 공사는 고려대역의 변화 가능성을 보여준다. 비어 있는 고려대역 지하 3층 대합실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으며 다른 지역과의 또 다른 연결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 교통 외의 다른 측면에서도 고려대역 역세권은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역세권 내에는 2개의 재개발 사업 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아직 개발이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진행을 위해 개발 구역 거주민들을 모두 이주시키는 과정에 있다. 강북권 교통의 요충지인 청량리역 일대라는 점에서 개발이 어떻게 추진될지 주목받고 있다. 한 구역은 이주 개시 기간 또한 거의 끝나간다는 점에서 분양가와 분양 일정까지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두 개발지구의 사업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려대역 상권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고려대역은 주거 구역의 역할은 크게 수행하고 있지만, 상권은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노후 주택의 모습을 탈피하고, 새로운 역세권 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사대상	상월곡역	작성자	홍준섭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

역명	상월곡역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역)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지하157, 상월곡동 26-1
개통 연도	6호선: 2008년 8월 7일 (종착역) 6호선: 2008년 12월 15일 (중간역 전환)
면적	상월곡역은 -6호선: 대합실 7,146㎡, 승강장 2,382㎡,
역명 변천 및 유래	상월곡역은 천장산의 형세가 마치 반달과 같다고 하여 그 산에 접해 있는 마을을 '다릿굴(골)'이라 부르는데서 유래하였다. 이 중 높은 지대에 위치한 지역을 '웃다릿굴, 아래 지역을 아랫다릿굴'이라 불렀는데, 1894년 갑오개혁 때 월곡상리로 명명한 이후 1914년 경기도 고양군 상월곡리가 되었다 위 지역을 상월곡동이라 한 마을 이름을 지하철 개통 때 역 이름으로 붙였으며, 인근에 한국과학기술원이 있어 1996년 3월 26일 병기하게 되었다.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2036/S/1/datasetView.do 출처-서울데이터광장

2) 역사 내부 정보

- 출입구 수 및 주요 연결 시설

출구 번호	주요 연결 시설
1번 출구	동덕여자대학교, 월곡중학교, 서울월곡초등학교, 동아아파트
2번 출구	석관동우체국, 서울장위초등학교, 장위지구대, 장위시장
3번 출구	새석관시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치안센터
4번 출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북구보훈회관, 성북정보도서관, 월곡2동 주민센터, 성북장애인복지관, 성북구재활용센터

상월곡역은 총 4개의 출입구를 갖추며, 섬식 승강장 2면 3선의 지하역이다. 출입구의 근처를 살펴보았을 때 1번 출구쪽에는 동덕여자대학교, 월곡중학교, 서울월곡초등학교가 인접. 2번출구 쪽에는 석관동우체국, 장위지구대가 인접. 3번 출구에는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인접해있으며 돌곶이역보다도 더 인접하게 위치해있다. 4번 출구에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성북구보훈회관, 성북정보도서관 등이 위치해있다. 언덕에 위치해 있는 역으로 1,4번 출구쪽과 2,3번 출구 쪽의 고저차가 다르다.

- 구조(승강장 형태, 대합실)

6호선: 섬식 승강장 (2면 3선)

- 시설 현황

이동 접근시설	-에스컬레이터 총 3대로 같은 방향인 1번 출구와 4번출구쪽에 위치해 있으며, 반대편인 2,3번 출구 같은 경우 3번 출구에만 에스컬레이터가 위치해 있음. -엘리베이터는 역 구조상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어려움으로 대합실에서 승강장이 연결되어있는 엘리베이터 밖에 없음.(2024년 10월 완공)
생활 편의 시설	- 공중전화, 수유실 등이 있으며 공중전화는 양옆 출입 방향쪽에 위치되어있고 수유실은 1번 4번 출구 방향인 고객안전실에 위치해 있음.
무장애·약자 지원 시설	- 장애인 리프트, 고객안전실 등이 있으며, 1,4번 출구 방향에 위치해 있음.
정보 안내 시설	- 지하2층 고객안전실이 있음.

3) 이용 현황

-일 평균 승하차 인원(2025년 8월 12일~9월 10일 기준)

6호선	승차: 약 6,291명/일 하차: 약 5,736명/일
-----	----------------------------------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평균 8,418명으로 시간대별 합산 336,729명 중 승차 08-09시 26,006명 1위, 07-08시 22,820명이 2위로 출근시간대에 많은 사람이 승차하며 혼잡도가 높음.
(2025년 8월 기준)

출처-서울데이터광장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2921/F/1/datasetView.do>)

4) 역세권 주변 정보

-주거 분포: 근처에 대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등이 많아 주거 구역 밀집.

상권 분포 및 특징: 너무 멀지 않은 거리에 한국예술종합학교, 동덕여자대학교가 있어 대학가 상권 발전 및 시장 위치

공공·생활 기반 시설: 성북구 정보도서관, 주민센터, 과학기술연구원 등 사회 편의시설 밀집.

교통 연계: 주변에 환승역이 없어 연계 다소 불편, 주로 버스를 통한 환승 연계

5) 촬영계획

① 역사

-대합실 내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위치 촬영, 편의시설(수유실, 안전실 등) 및 역사 내 있는 복합시설인 사이언스 스페이스 촬영

-역 주로 이용 개찰구: 1번출구 방향 동덕여자대학교 학생과 3번출구 방향 한국예술종합학교의 학생의 지하철 이용 예측, 출퇴근 혼잡도 밀집 상황 조사

-역 외부 출구 앞 사진: 위로 역 북부간선도로가 존재하여 과거와 현재 모습 비교 사진

② 역세권

-한국예술종합학교

선정이유: 돌곶이역과 상월곡역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어느 역을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한지 파악

촬영대상: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연결도로 및 학교까지의 접근성, 거리 촬영

-동덕여자대학교

선정이유: 월곡역과 상월곡역과 인접해 있는 곳으로 어느 역을 이용하는 것이 더 용이한지 파악

촬영대상: 동덕여자대학교까지의 연결도로 및 학교까지의 접근성, 거리 촬영

2. 현장 조사

① 출입구와 접근성

사전조사 결과대로 4개의 출구가 존재하며 모두 각 출입구의 번호와 상월곡역(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는 병기명이 표시되어 있는 기둥이 세워져 있다. 동서 방향에 2개의 출입구가 존재하며 동쪽에는 2·3번 출구가 존재하고 서쪽에는 1·4번 출구가 존재한다. 여기서 특이한점은 3번출구 방향에 엘리베이터 이용안내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표기된 동쪽과 서쪽 출구의 반경 거리는 200m로 표기되지만 실제 약 391m정도로 출구 간 거리가 매우 멀어 유모차와 휠체어 같이 엘리베이터가 필요한 경우 4번출구 까지 움직여야하는 단점이 있다.

② 역사 구조

1·4번 출구 방향 같은 경우 지하3층 승강장, 지하 2층과 1층은 대합실 및 사이언스 스테이션이 존재하며 2·3번 출구의 경우는 지하1층이 존재하지 않고 지하 2층 대합실 지하 3층 승강장의 구조를 띄고 있다.

③ 편의시설 상태

사전조사 당시 1·4번 출구 방향에 엘리베이터, 고객안내실, 화장실, 수익목적시설, 사이언스 스테이션과 같이 편의시설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 설 수 있는 의자와 그림이 전시되어 있고 화장실 및 각 편의시설이 매우 청결하여 이용에 만족을 느낄 수 있고 수익목적시설 또한 정상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 반면에 2·3번 출구 방향에는 편의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로 더욱 차이가 분명하였으며, 2·3번 출구 방향에 지하 2층에서 지상까지 일부 운영하는 에스컬레이터를 제외하고는 편의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④ 사이언스 스테이션

1·4번 출구 방향에 지하 2층과 지하1층에 위치한 편의시설로 지하1층에는 과학자존, 지하2층에는 강연장, 인터랙티브 월, 미디어 아트존, 바이오 리빙 랩이 있다. 바이오 리빙 랩 경우 현재는 운영하지 않으며, 미디어 아트존에는 반응속도 체험, 가상 드라이브, 과학 테마 동영상이 반영되어 체험을 즐길 수 있다.

⑤ 체감분위기

승강장 양 옆에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어 있어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승강장에서 내린 후 출구 안내판 및 안내도가 눈에 띄이는 곳에 크게 배치되어 있어 가시성이 뛰어난 편이다.

2) 역세권 체험

① 주거 현장 모습

1번 출구와 3번 출구 방향에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1번 출구 경우 2번 출구 사이에 위치 해있는 월곡중학교 기준까지 주거 환경이 조성되어 있으며 경사가 높다. 주거 환경은 주로 주택 및 빌라로 조성되어 있으며 아파트 같은 경우 (우남아파트, 파밀리에아파트 등) 90년대 후반 아파트와 10년대 초반 아파트가 혼재되어 있다. 또한 상월곡역 바로 위에 하월곡 ic가 위치해 있어 경사가 높은 1번 출구와 2번 출구 사이에 있는 빌라의 경우 소음이 다소 심한 편이지만, 역사와 거리가 조금 떨어진 주거 현장 같은 경우 조용하고 예쁜 거리들로 넘치는 모습을 보여준다.

② 상권 분위기

2번 출구와 3번출구 사이와 4번 출구 방향으로 상권 거리가 조성되어 있다. 상월곡역 바로 위에 하월곡ic가 위치해 있어 상월곡역 특성상 높은 건물이 들어오기가 힘들어 1층 위주로 상권이 조성되어 있다. 역사와 가까운 상권의 경우 나이대가 다소 있을법한 기사식당과 삼겹살 집이 위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역사와 다소 거리가 떨어진 상권의 경우 대학과 인접하여 젊은세대를 겨냥한 상권으로 분포되어 있다

③ 공공시설 접근성

.4번출구 방면 바로 앞에 월곡2동 주민센터와 상월곡 실버 복지센터가 있어 공공·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하다. 또한 상월곡역 1·4번 출구에 있는 개찰구 밖 미디어 아트존이 존재하여 누구든지 편하게 과학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 도보 20분정도 소모되는 거리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④ 교통 연계 실제 체감

1·4번 출구 방향에 3개의 버스 정류장이 인접하여 열차와 버스까지의 환승이 매우 편리한 편이지만 도로가 막히는 경우가 잦고 버스 배차 시간이 길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또한 2·3번 출구 방향에 버스정류장이 거리가 다소 멀어 초행으로 상월곡역을 방문하시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 보행환경은 1·2번출구 사이의 경우 보행거리가 좁아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그 외에 경우 큰길로 통하는 길이 조성되어 있어 깨끗하고 편리한 편이다. 또한 월곡2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공용자전거 거치대가 배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용이하다,

3) 시간대별 혼잡도

① 이용 추이

평일 평균 승하차 인원은 약 7000~7500명 정도이며 주말 평균 승하차 인원은 4000~4500명 정도로 평일과 주말의 승하차 인원이 3000명 정도 차이가 난다.

주로 출퇴근 시간인 7~9시 경우 많은 사람들이 승차하고 17~19시 사이의 승객이 하차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② 주요 이용자 층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역에 속하지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방문하기 위해 역사를 내리는 경우는 적으며 주로 학생, 가구원, 직장인 등의 이용자 층이 주를 이룬다. 현장조사 결과 오후 시간대

에는 주로 노인분들이 주 이용자 층에 속하며 근처에 인접한 동덕여자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를 등하교 하기 위해 이용하는 학생들도 볼 수 있다.

③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지역 분위기

역사 내 바로 근처에는 도로와 ic가 위치해 있어 다소 소음을 느낄 수 있지만 주거밀집지역에 갈수록 되게 한적하고 조용하면서 분위기에서 오는 운치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또한 1번출구 방면에 주택의 경우 골목 거리마다 거리가 넓게 조성되어 있고 주택마다 감나무들이 많이 보여 생활 환경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지역이라고 생각한다.

3. 결론

① 역세권의 종합적 특징

상월곡역 역세권은 동덕여자대학교와 한국예술종합학교가 인접해 있어 자연스럽게 대학가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으며, 주변에는 주택과 빌라 등 주거 지역이 혼재해 다양한 연령층이 거주하고 상권을 형성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두 대학의 접근성이 뛰어나 학생들의 주요 대중교통 수단으로 활용되며, 인근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위치해 있어 학부모와 학생들의 교육 수요도 높은 편이다. 더불어 '사이언스 스테이션'과 같은 과학 체험 공간이 있어 교육·문화적 활용도가 높으며, 월곡2동 주민센터와 인접해 공공시설 접근성이 우수하다.

② 다른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 차별성

대학 밀집형 역세권'의 성격을 띠면서도 동시에 단독주택·빌라 등 주거 비중이 높아 지역 주민과 학생층이 공존하는 구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상업지 중심으로 특화되는 여타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 상권이 과도하게 발달하지 않고 생활밀착형 상권이 유지되는 특징을 만든다. 또한 상월곡역은 '사이언스 스테이션'과 같은 과학 체험·교육 특화 콘텐츠를 갖추고 있어, 단순한 교통 중심지가 아니라 교육·문화 체험 기능이 결합된 역세권으로 기능한다. .

③ 향후 발전 가능성

하월곡IC의 교통 구조적 영향과 상월곡역 특유의 상대적으로 높은 지대는 대규모 상업시설의 확장이나 신규 개발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지역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한 점진적 개선을 통해 공공시설과 편의시설을 보완·확충함으로써 주민과 학생 모두에게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사대상	돌곶이역	작성자	김채령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

역명	돌곶이역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지하243(석관동)
개통 연도	2000년 8월 7일
면적	대합실: 4274.8㎡ 승강장: 2160.01㎡
역명 변천 및 유래	역 이름은 역이 위치해 있는 석관(石串)동을 순우리말로 풀이한 돌곶이에서 유래했다. 마을 동쪽에 위치한 천장산의 한 맥이 검정 돌을 꽃아 놓은 듯, 다시 말해 수수팔떡이나 경단을 곶이에 꿰어 놓은 것 같아 돌곶이 마을이 되었다는 설과 이곳의 지형이 곶이로 되었기에 돌곶이라 하였다는 두 가지 설이 있다. 이에 유래하며 이것을 한자로 표기하여 석관동(石串洞)이라 함.

출처:국립문화재청, 서울열린데이터광장

2) 역사 내부 정보

- 출입구 수 및 주요 연결 시설

출구 번호	주요 연결 시설
1번 출구	장위2파출소
2번 출구	장위2동사무소, 장위초등학교
3번 출구	장위동우체국, 장위종합사회복지관, 장위3동사무소, 장위3파출소
4번 출구	장위 소방파출소
5번 출구	석관1동사무소, 석관1파출소
6번 출구	석관초등학교, 대한예수교장로회 석관중앙교회
7번 출구	석관2동사무소
8번 출구	석관2파출소,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치안센터

돌곶이역은 총 8개의 출입구를 갖춘 역이며, 대표적인 출입구의 예를 들면 1번 출구는 장위2파출소에 연결되어 있어 주변 식당가와 카페가 밀집해 있다. 2번 출구는 장위2동사무소와 장위초등학교에 연결되어 있으며, 3번 출구는 장위3동사무소와 장위종합사회복지관과 인접해 있다. 이외에도 6번 출구는 석관초등학교와 석관중앙교회와 연결, 8번 출구는 석관치안센터, 한국예술종합학교 등과 인접해 있다.

- 구조(승강장 형태, 대합실)

상대식 승강장 (2면 2선)

- 시설 현황(이동/안전/생활/정보/무장애/문화 등)

이동 접근시설	- 에스컬레이터 총 4대이며 1번 출구 방면으로 1개, 5번 출구 방면으로 1개, 8번 출구 근처 상행과 하행으로 총 2개가 있음 - 엘리베이터는 대합실과 8번 출구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2대와 외부로 연결되는 엘리베이터 1대가 운행 중임
생활 편의 시설	- 즉석사진기, 물품보관함, 자전거 보관 장소 등이 있음
무장애·약자 지원시설	- 전동휠체어충전설비와 장애인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
정보 안내 시설	- 고객센터, 다국어 안내 표지판(한·영·중·일)이 있음

출처:국토교통부 철도산업정보센터

3) 이용 현황

- 일 평균 승차/하차 인원(2025년 8월 1일 기준)
승차: 약 11,710명/일
하차: 약 10,708명/일
 - 출근 시간대(06~09시)에는 뚜렷하게 승차에 인원이 집중되었으나 하차는 같은 시간대에 적다. 오히려 저녁 퇴근 시간대(17~20시)에는 하차에 집중되었다.
 - 오전 승차가 많고, 저녁 하차가 많은 것으로 보아 주거지 출발과 도착 패턴으로 보인다. 역 인근에는 주거지와 소규모 상권, 학원가가 분포해 있어 통근과 통학의 수요가 높은 경향이 있다.
- 출처:공공데이터포털

4) 역세권 주변 정보

- 주거 분포: 중랑천과 가까운 준주거·주거 지역이 형성되어 있으며, 역세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단지(장위, 삼성래미안 등)와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된 전형적인 주거 중심 구조이다.
- 상권 분포 및 특징: 대형 상권보다는 소규모 생활형 상권이 주를 이루며, 골목상권 중심의 음식점·편의점·학원 등이 분포해 있어 이문동·석관동과 인접하여 지역민을 위한 소비 중심이다.
- 공공·생활 기반 시설: 주변에 한국예술종합학교, 석관초등학교, 주민센터 등 생활 기반 시설이 고르게 분포해 있다.
- 교통 연계: 지하철 6호선 단일 노선 역이지만 버스 노선망과 연계성이 높아 노원·성북·동대문 방면으로 이동이 편리하며, 동북부 거주민의 강북 도심 및 강남권 환승 접근 거점 역할을 한다.

1번 출구

지선버스: 1111

간선버스: 120, 173

2번 출구

간선버스: 147, 261

3번 출구

간선버스: 147, 261

5번 출구

지선버스: 1111, 1222

간선버스: 173

심야버스: N13

7번 출구

지선버스: 1222

간선버스: 120, 147, 261

심야버스: N13

출처:국가대중교통정보센터

5) 촬영계획

① 역사

- 8번 출구 전경: 주거 밀집지 및 근린 상권과 연결성을 보여주는 외부 전경 촬영
- 대합실 내부 및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위치 기록, 편의시설 촬영, 출입구 전경
- 승강장: 스크린도어, 안내 전광판, 발빠짐 주의 표지판 기록
- 특이 시설: 임시 설치된 공공 디자인 요소(작품, 안내 문구) 등
- 출퇴근 시간대 인파 촬영 (사람 흐름 위주), 한산한 시간대의 대합실과 승강장 비교 장면 등

② 역세권

- 신규 주거단지 계획 중인 지역

선정 이유: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 계획 중인 지역으로, 역과 상업/공공시설 연결과 입지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됨.

촬영 대상: 인접 도로망, 주민 이동 경로, 계획된 단지 경계

- 돌곶이 시장

선정 이유: 전통적 상권이 살아있는 지역 상업 중심지로, 주민 일상 소비 및 거리 상권의 생생한 모습이 드러남.

촬영 대상: 시장 입구, 상점 간판 및 이용객 모습

- 소규모 상점가 (골목상권)

선정 이유: 인근 주민 이용 중심 상업시설의 밀도와 다양성 보여줌.

촬영 대상: 출구 주변 상점들, 카페, 편의점, 학원 등, 골목길 모습, 유동 인구 흐름

2. 현장 조사

1) 역사 내부 체험

- 출입구 접근성 (경사도, 계단, 휠체어/유모차 접근성)

돌곶이역은 출입구가 길게 분산돼 있으며, 대부분의 출입구가 지상 인도와 바로 연결되어 있지만 경사도가 급격한 편이며, 일부 출입구는 계단만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이 접근하기 어려운 구간이 존재한다. 출입구 주변 보행 공간은 비교적 넓고 차량 통행도 많지 않아 이동 동선 자체는 안전하게 확보되어 있었다. 3번 출구는 엘리베이터와 경사로가 설

치되어 있어 접근성이 좋은 편이지만 나머지 출구는 계단만 있거나 경사로가 없는 곳이 많아 접근성이 안 좋은 편이다.

- 시설 이용 편리성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작동 여부, 청결도)

엘리베이터는 모두 정상 작동 중이었으며, 대합실과 승강장 간 수직 이동이 원활했다. 에스컬레이터 역시 모두 정상 가동 중이었고, 고장 안내문 등의 불편 요소는 발견되지 않았다. 역사 내 청결 상태도 양호했는데, 방문한 주말 낮 시간대 당시, 바닥 오염이나 쓰레기가 거의 없어 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내 스크린과 전광판은 정상적으로 작동해 승차 정보 확인이 쉬웠다.

- 편의시설 상태 (화장실, 상점, 수유실 등)

화장실은 청결도가 유지되고 있었고 출구와 가까워 접근성이 좋았다. 화장실 앞에는 간단한 위생용품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어 편의성 또한 좋았다. 역사 내 상점은 소규모 간편매점 중심으로 정상 운영 중이었으며, 음식점이나 대형 프랜차이즈는 거의 없다. 또한, 역사 내 상점은 규모가 크지 않으며 편의점과 소형 매점 위주로 이루어져 있다. 수유실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 체감 분위기 (안전성, 안내 표지판 가시성)

출구 번호와 환승, 도착 열차 정보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길 찾기가 매우 쉬웠다. 특히 지상으로 향하는 동선을 직관적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이 잘 배치되어 있어 초행자도 어렵지 않게 이동할 수 있다. 비상시 피난계단 사용법, 비상인터폰, 소화기, 비상조명등 등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어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과도하게 혼잡한 구간이 없어 안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다.

2) 역세권 체험

- 주거지 현장 모습 (건물 노후도, 생활감)

돌곶이역 주변은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주거지로, 3번과 4번, 8번 출구에 있는 아파트 단지와 다세대주택이 섞여 있으며, 아파트 단지를 제외한 건물의 노후도가 비교적 높은 편이다. 일부 골목은 오래된 외벽과 좁은 보행로가 남아 있어 시간이 쌓인 생활감을 느낄 수 있었다. 다만, 역 근처 1층 상가나 골목 상점들이 꾸준히 운영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일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 상권 분위기 (영업 활발 정도, 전통시장 분위기)

돌곶이역 주변 상권은 대형 프랜차이즈나 쇼핑 중심 상권이 아니라 생활형 상권 중심이다. 주로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분식집, 작은 음식점, 미용실, 카페, 편의점 등이 다수 분포한다. 점심시간에는 직장인보다는 학교 인근 학생들과 지역 주민이 주 이용층으로 보인다. 돌곶이시장이라는 전통시장의 형태의 상권이 형성되어있으며, 뿐만 아니라 골목 깊숙한 곳에 오래된 슈퍼나 식료품점 등 '동네 가게'가 남아 있어 조용하고 안정적인 상권 흐름이 유지된다.

- 공공시설 접근성 (도보 거리, 이용 편리성)

역에서 도보 5~10분 거리 내에 학교, 도서관, 주민센터 등 다양한 공공시설이 밀집되어 있다.

보행 중심 생활권이 잘 구축되어 있어 역 주변 보행 동선도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초등학교는 도보 이동이 쉬운 위치에 분포하고 있어 학생들의 통학 동선과 역 이용 동선이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다. 주민센터도 가볍게 걸어갈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의 생활 접근성이 매우 좋은 편이다.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등 여러 은행이 역 근처에 밀집해 있으며, 출구 바로 앞에 치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등의 병원 또한 밀집해 있어 이용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 교통 연계 실제 체감 (버스 환승 편리성, 자전거 거치 상태, 보행 환경)
역 출입구와 매우 가까운 위치에 정류장이 있으며, 방향별 정류장이 길 건너 맞은편에 위치해 환승이 편하다. 자전거 거치대는 3번 출구 엘리베이터 근처에 위치해 있으나 실제 이용률은 높지 않았다. 거치대 주변 보행 공간은 충분히 보행과 충돌할 위험은 크지 않았으며, 주변 CCTV가 있어 방범성도 양호하다. 보행 환경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다. 역 앞 사거리가 위치해 있어 차량 통행량이 많으나 인도 폭도 적정 수준으로 확보되어 있어 노약자나 학생들도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다. 골목길은 다소 좁은 편이지만 차량 속도가 낮아 위험성이 크지 않다.

3) 이용 현황 관찰

- 시간대별 혼잡도 (출근, 점심, 저녁, 주말)

퇴근 시간대에는 학생들과 직장인이 동시에 유입되며 혼잡도가 가장 높지만, 강남권 퇴근노선 중심의 역들에 비하면 여전히 비교적 여유로운 수준이다. 승강장 대기는 혼잡하지만 과밀한 정도는 아니다. 주말 16시 대에는 평일 퇴근 시간대에 비해 역 이용객이 크게 줄어 한산하며, 혼잡이 거의 없다.

- 주요 이용자 층 (학생, 직장인, 가족, 관광객 등)

주요 이용자는 인근 학교 학생, 직장인, 지역 주민이다. 관광 명소가 있는 역이 아니기 때문에 관광객이나 외부 방문객의 비중은 매우 낮으며, 주말에도 가족 단위 이용객이 눈에 띄게 많지는 않았다. 역세권 자체가 주거 중심이기 때문에 역 이용층의 대부분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대부분이었다.

-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

역사 내 전반적인 분위기는 밝비지 않고 조용하며, 대형 상권이나 복합문화시설이 없어 화려한 느낌은 없지만, 주거지 특유의 생활감이 느껴진다. 이동 동선이 단순하고 혼잡이 적기 때문에 골목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오래된 주택과 가게들이 남아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일상이 그대로 느껴졌다.

3. 결론 (종합 분석)

- 종합적 특징

주거 중심 역세권으로 상업적 기능보다 주민 생활 편의 중심이며, 복잡한 환승 구조가 없고 이용 흐름이 단순해 이동 편의성이 매우 크다. 또한, 버스 환승 및 보행 접근성이 좋고 생활 인프라가 고르게 분포해 있어 근거리 생활권 중심의 이용 패턴이 뚜렷하다.

역사 내부 시설은 개통한 지 오래되었음에도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 등 주요 승강 시설도 정상 작동해 이용 편의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혼잡도가 낮아

이동 스트레스가 적고, 안정적인 분위기가 유지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역 주변 환경은 노후 주택지와 소규모 생활형 상권이 공존하는 구조로, 성북구의 오래된 주거지 특성이 고스란히 나타난다. 건물들은 리모델링이 일부 이루어져 있으나 전체적인 분위기는 여전히 과거의 모습이 남아 있어 지역의 일상성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로 인해 역 주변에서는 주민 생활 패턴이 그대로 관찰된다.

- 다른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성

외부 방문객이나 관광객 비중이 매우 낮아 생활권 중심의 순수한 지역성 유지가 가능하며, 대형 상권이나 관광지 중심이 아니라 단순하고 정돈된 구조로 이용하기 편리하다. 대형 상권이 없으므로 혼잡, 소음, 유동 인구 폭증 현상이 적고 특유의 조용한 주거지 분위기가 존재한다. 종합적으로 볼 때, 돌곶이역 역세권은 조용하지만 기능적으로 안정적인 생활 기반 지역으로 인구 이동의 목적이 명확해 복잡하거나 외부 유동인구에 의존하는 다른 역세권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보인다.

- 향후 변화 가능성 (재개발, 상권 변동, 교통 확장 등)

1. 주거 변화 가능성

대규모 재개발이 이루어지기에는 기반 시설 및 토지 구조가 다소 제한적이지만, 역 인근에 위치한 소규모 노후 주택들은 향후 리모델링 또는 소규모 재정비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질 수 있다.

2. 상권 변화 가능성

대규모 상업시설 조성 가능성은 낮아, 전체 상권은 앞으로도 일상 소비 중심의 생활 편의를 위한 구조를 유지할 것이다.

3. 교통 및 보행 환경 개선 가능성

교통 체계는 대규모 변화보다 보행 환경 개선, 버스 노선 조정, 횡단보도 신설 및 정비 등 생활형 교통 정책 중심의 변화가 예상된다.

조사대상	북한산 보국문역	작성자	김경민, 오필현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¹⁾

역명	북한산보국문역(서경대)
위치	서울 성북구 정릉동 286-19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국문로 지하 88)
개통 연도	2017년 9월 2일
면적	-
역명 변천 및 유래	역명은 이 역에서 보국문로 방향을 따라 북한산에 올라가면 나오는 북한산성의 보국문에서 유래하였다. 해발 562m에 있는 보국문(輔國門)은 북한산성의 동남쪽에 있는 문으로 북한산성이 축성되면서 같이 만들어졌으며, 보국문은 대성문과 대동문 사이에 있는 암문이다. 암문은 평상시에는 백성들의 출입문으로 이용됐으며, 전쟁 때는 비밀통로로 사용됐다. ²⁾

2) 역사 내부 정보

- 출입구 수 및 주요 연결 시설

출구 번호	주요 연결 시설
1번 출구	서경대학교, 정릉시장, 청수도서관
2번 출구	정릉4동 주민센터, 국민대학교, 정릉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경국사

북한산 보문역은 출입구 수는 2개로 1번 출구에서는 서경대학교와 정릉시장으로 갈 수 있다. 2번 출구에서는 정릉4동 주민센터와 국민대학교, 경국사로 갈 수 있고, 정릉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로도 갈 수 있다. 또한 각 출구와 엘리베이터 사이에는 북한산보국문역 1, 2번 출구 버스 정류장이 있다.

- 구조 (승강장 형태, 대합실)

우이신설선: 상대식 승강장(2면 2선)

지하 1층-대합실

지하 2층-승강장

- 시설 현황

이동 접근시설	- 에스컬레이터 총 4대로, 1번 출구와 2번 출구에 각각 상행과 에스컬레이터가 있다. - 엘리베이터는 총 4대로, 1번 출구와 2번 출구 쪽에 엘리베이터가 각각 하나씩 있어 대합실로 연결되어 있다. 나머지 2대는 각각 대합실과 상행 승강장, 하행 승강장과 연결되어 있다.
생활 편의 시설	- 유실물 센터가 있으며, 수유 시설은 없다.
무장애·약자 지원시설	- 모든 출입구와 모든 승강장까지 엘리베이터가 있다. - 장애인 화장실이 대합실에서 2번 출구 근처에 있다.
정보 안내 시설	- 고객 안내센터, 다국어 안내 표지판(한·영·중·일)이 있다.

3) 이용 현황³⁾

- 일 평균 승하차 인원(2025년 8월 기준)

우이신설선	승차: 약 5,394 명/일 하차: 약 5,072 명/일
-------	------------------------------------

- 출퇴근 시간 집중률은 31%로 높다.
- 출근 시간에는 승차 인원이, 퇴근 시간에는 하차 인원 비율이 높다.

4) 역세권 주변 정보

- 주거 분포: 보국문로를 접한 일부 건물과 대부분의 주거용 건물. 또한 522세대의 정릉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가 2번 출구 근처에 위치함
- 상권 분포 및 특징: 보국문로 인접 상업용 건물/ 음식점, 생필품 상점 등
- 공공·생활 기반 시설: 정릉4동 주민센터, 어린이집, 교회, 병원, 1km 내 서경대학교
- 교통 연계: 도보 연계 편리, 2개 출구로 구성, 인근 6개 노선 버스 정류장이 있음
북한산보국문역 1번 출구 정류장

(08409/정릉 4동 주민센터. 경국사 방면)

간선-110A 고려대, 110B 국민대, 143, 162

지선-1014, 1113

북한산보국문역 2번 출구 정류장

(08408/성북 청수 도서관. 정릉4동성당 방면)

간선-110A 고려대, 110B 국민대, 143, 162

지선-1014, 1113

5) 촬영계획

① 역사(필수 촬영)

- 2번 출구 전경: 북한산 보국문으로 향하는 길, 인근 교통 시설과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대합실 내부: 에스컬레이터·엘리베이터 위치, 편의시설(유실물 센터, U-도서관)
- 승강장: 플랫폼 구조, 곡선형 승강장의 발 빠짐 주의 표지판
- 혼잡 시간대 개찰구: 이용 인구의 밀집 상황

② 역세권

- 서경대학교
 - 선정 이유: 병기한 이름의 대학이며 주 이용객일 확률이 높음
 - 촬영 대상: 서경대학교 외관과 유입 인파, 주변 상권과의 연결성 촬영
- 북한산 보국문
 - 선정 이유: 역명의 유래인 지역 상징
 - 촬영 계획: 보국문 외관, 북한산 풍경, 이용객 모습
- 정릉4동 주민센터·공공시설
 - 선정 이유: 행정·생활 기반 공간과의 접근성을 확인
 - 촬영 대상: 주민센터 건물, 안내 표지판, 주변 생활환경

2. 현장 조사

1) 역사 내부 체험

북한산보국문역의 출입구의 경우 1번 출구는 외부에서 접근시 보도와의 단차가 없지만, 2번 출구의 경우 계단 하나정도의 차이가 있었다. 물론 1번출구와 2번 출구 인근에 보도와의 단차가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교통약자 혹은 수레나 캐리어가 있는 경우에도 대응이 가능했다. 1번 출구와 2번 출구 모두 계단 없이 에스컬레이터로 되어 있었고, 에스컬레이터의 경우 협소형 에스컬레이터이다. 따라서 현재 작동되고 있어 지상과 대합실 간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1,2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와 1,2번 출구 인근의 엘리베이터 밖에 없다.

대합실의 경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으며, 1,2번 출구와 그 인근에 있는 두 대의 엘리베이터를 통해 지하 1층으로 내려오면 2번 출구 엘리베이터 쪽에는 화장실(장애인 화장실포함)이 있으며, 화장실의 경우 매우 청결했다. 사전조사 시에는 1번출구 인근에 위치해 있다고 조사되었지만 직접 현장에 가보니 2번출구 쪽에 있었다. 수유실은 따로 없었었다. 1번 출구와 2번 출구에서 내려오면 미끄럼 방지 매트 보관 장소와 주변 지역 안내도가 각각 있으며, 대합실 중간에는 일회용 승차권 발매 및 교통카드 충전기, 보증금 환급기, U-도서관이 있다. 또한 점자 역사 안내판과 서울 둘레길 가는 길 등의 안내판이 있었다. 개찰구의 경우 일반개찰구와 교통약자 개찰구, 태그리스 게이트로 되어 있었다. 개찰구 수가 적정하기 때문에 이용객이 많은 첨두시간에도 대응할 수 있었다. 개찰구 안쪽에는 부스 형태의 역무원실이 있으며, 유실물센터를 겸하는 것 같았다. 역무원실의 경우 역무원이 항상 있지는 않았다. 개찰구 안쪽에는 자동심장충격기와 역사 이용 및 비상 대피 안내도와 주변 지역 안내도, 일회용 승차권 정산/교통카드 충전기, 전철 출발·도착 정보 안내기가 있었다. 또한 대합실과 정릉역과 솔샘역 방면 승강장으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이 각각 있었다. 우이신설선 노선도 등이 있었다. 각종 안내 표지판의 경우에는 가시성이 좋았고, 지워지는 등의 하자가 있지는 않았다.

지하 2층 승강장의 경우에는 상대식 승강장이었고, 솔샘역 방면 승강장과 정릉역 방면 승강장은 같은 구조로 되어 있었다. 승강장의 경우 안전문으로 되어 있었고, 의자 있어

잠시 앉아 있을 수 있었다. 승강장과 전동차 간의 간격은 넓지는 않아서 그런지 발 빠짐 주의 표지판은 따로 없어서 촬영하지 못했다.

추가로 역사 내에 상점은 따로 없고, 광고판이 지하 1층에 있지만 광고·체험 공간으로 된 팝업형 문화시설은 따로 있지 않았다. 또한 버스 정류장이 바로 있기에 인근 교통 시설과의 연결성은 좋았지만, 해당 정류장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촬영하지 못했으며, 인구 밀집 상황을 나타내는 사진 역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촬영하지 못했다.

2) 역세권 체험

역세권의 경우 주로 주거지로 이뤄져 있고, 해당 주거지의 경우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이 대부분 있었다. 또한 노후된 주거 건물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단층으로 이뤄져 있었고, 또한 단층 건물과 정릉 현대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를 제외하면 빌라형식의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역세권의 건물 노후도 분석 시각화4)

상권의 경우 정릉골 골목형 상가와 정릉시장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상가는 보국문로에 접해 있었다. 또한 상가의 주 이용객은 서경대 혹은 대학생이 아닌 지역주민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주말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등산객이 해당 상권을 이용을 하기도 했다. 즉, 상권의 경우에는 보통 지역주민이, 주말의 경우 등산객이 이용을 많이 했다. 정릉 시장의 경우에는 정릉골 골목상권 보다 활발했고, 정릉골 골목상권의 경우 다소 한산했다. 서경대의 경우에는 거리는 가까웠으나, 서경대로 가는 길이 급경사로 되어 있어 해당 길을 이용하여 등하교하는 학생은 거의 없었으며, 버스 역시 바로 가는 노선이 없었다. 한편 국민대의 경우에는 버스 노선이 있었고, 소요 시간 측면에서 보면 두 대학교까지의 시간은 비슷했다. 또한 역 주변에는 정릉 4동 주민센터와 청수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위치해 있어 도보로 5분에서 8분 정도면 두 군데 모두 접근이 가능했다.

해당 역세권의 경우에는 경국사를 포함한 다수의 종교시설이 있다는 것과 역 바로 옆에는 정릉천이 있어 산책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었다. 북한산보국문의 경우에는 역에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거리에 있는 북한산국립공원 입구를 통해 갈 수 있으며 보국문까지는 공원 입구에서 1시간 30분 정도 걸린다. 방문했을 당시 날씨가 좋지 못했고, 소요 시간이 상당하기에 보국문까지는 가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교통 연계 측면에서는 버스 정류장이 역 바로 앞에 있어 이용하는 사람이 많았으며, 북한산보국문역 2번 출구 인근에 있는 엘리베이터 옆에는 따릉이 보관소가 위치해 있었다.

3) 이용 현황 관찰

사전 조사에 이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와 같이 평일의 경우 출근하거나 등교하는 등 승차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으며, 점심의 경우 다소 한산했다. 저녁에는 퇴근하거나 하교하는 등 하차하는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주말의 경우 북한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려는 등산객들의 비율이 높았다. 두 개의 대학교(국민대와 서경대)가 인근에 있음에도 학생의 비율이 높지는 않았다. 평일의 경우에는 해당 역세권에 거주하는 거주민이 많이 이용했으며, 주말의 경우에는 북한산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내외국인 등산객이 많이 이용했다.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의 경우 전형적인 주거지역이라는 느낌이 강했으며, 역 인근에 있는 정릉골 골목형 상가의 경우 대학가의 상권보다는 지역거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상점가의 성격이 더 강했다. 또한 인근에 종교시설이 많이 분포되어 있어서 해당 지역 곳곳에 종교시설임을 알리는 구조물 혹은 안내판이 많았다. 지역 건물의 경우 노후된 건물이 많았지만, 도로가 상당히 깨끗했다. 또한 정릉천과 산책로가 있어서 산책하는 사람이 많았다.

3. 결론 (종합 분석)

북한산보국문역은 두 대학교가 위치했으나, 역명에 서경대가 있는 것이 무색하게도 국민대와의 소요 시간이 비슷하였고, 서경대 홈페이지의 오시는 길에서는 북한산보국문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인상 깊었다. 이에 따라서 역세권의 상권 역시 대학교보다는 지역주민과 등산객을 주 이용자층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종교시설이 많다는 점이 특이했다. 하지만 두 대학교가 인근에 있고, 북한산국립공원과 정릉천 산책로 등의 휴식 공간과 주민센터, 청수도서관 등 공공시설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정릉골 골목형 상권과 정릉시장 등의 상권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건물 대부분이 30년 이상 된 건물이라는 점에서 재개발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인다. 실제로 현재 많은 개발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역사 중심 500m 이내의 역세권 지역에 8개 정도의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북한산보국문역 일대의 개발계획 현황⁵⁾

-
- 1) <https://www.data.go.kr/data/15041029/fileData.do> (공공데이터 포털, 우이신설경전철-역사정보)
 - 2) <https://mediahub.seoul.go.kr/archives/2004117> (김진흥, "'잠시만 안녕' 북한산성 보국문과 대동문, 30년 만에 전면 보수", 내 손안에 서울, 2022.04.06.)
 - 3) <https://data.seoul.go.kr/dataList/OA-12914/S/1/datasetView.do> (서울열린데이터광장, 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 4) <https://map.vworld.kr/map/dtkmap.do> (V_WORLD, 지도 서비스 분석 및 시뮬레이션_건물 노후도 분석)
 - 5) <https://urban.seoul.go.kr/view/map/main.html> (서울도시공간포털, 지도서비스)

조사대상	정릉역	작성자	주상우, 김원석
------	-----	-----	----------

1. 사전 조사

1) 기본 정보

역명	정릉역(국민대)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39-80도 일대
개통 연도	2017년 9월 2일
면적	
역명 변천 및 유래	<p>성북구에서 이 역의 역명을 "정릉역"으로 명명하여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정릉을 테마로 한 창의문화역을 만들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서울시에 제출한 바 있고, 2016년 1월에 실시한 주민 선호도에서도 1. 정릉역, 2. 세계유산정릉역 두 개의 후보 중 정릉역이 총 105표 중 64표(60.95%)를 얻어 1순위가 되었다. 서울시 지명위원회를 통해 최종 역명 역시 정릉역으로 확정되었다.</p> <p>병기역명은 유상판매로 국민대입구가 병기되게 되었고, 이후 국민대로 변경되었다.</p>

2) 역사 내부 정보

- 출입구 수 및 주요 연결 시설

출구 번호	주요 연결 시설
1번 출구	송덕초등학교, 정릉우체국, 정릉교회, 길음119안전센터, 정릉시장
2번 출구	정릉, 정수초등학교, 정릉2동주민센터, 정릉도서관, 정릉2파출소, 정릉아리랑시장

- 정릉역은 총 2개의 출입구를 갖춘 우이신설선의 역중 하나이다. 1번 출구는 송덕초등학교, 정릉우체국, 정릉교회 등 생활기반시설이 밀집하여 있으며, 2번 출구또한 정릉2동주민센터, 정릉도서관, 정수초등학교 등 생활기반시설과 연결되어 있다. 1번 출구와 2번 출구 각각에 정릉시장과 정릉아리랑시장이 핵심상권으로써 연결되어 있다.

역사구조: 지하3층, 상대식 승강장(6.20m × 30.0m), 스크린도어 설치

소방설비: 옥내소화전함, 분말소화기

승강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AFC장비: 발권기, 발매기, 충전기, 정산기, 개집표기, 행선안내기

기타: 안내부스, 화장실(지하1층 : '신설동' 방향 개찰구 안쪽), 자전거 보관함 30대

3) 이용 현황

- 일평균 승차/하차 인원(8월19일~9월19일)

일평균 승차/하차 인원(8월 19일~9월 19일)	
정릉역	승차: 약 4863명/일 하차: 약 4325명/일

출처([서울시 지하철호선별 역별 승하차 인원 정보](#)> 데이터셋> 공공데이터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 시간대별 승하차 추이(9월)

정릉역(9월)	승차(단위:명)	하차(단위:명)	정릉역(9월)	승차(단위:명)	하차(단위:명)
04시-05시	4	0	16시-17시	8895	9900
05시-06시	2110	578	17시-18시	9425	11846
06시-07시	6180	1996	18시-19시	8810	16198
07시-08시	15079	3656	19시-20시	4942	13125
08시-09시	17891	7891	20시-21시	3533	8254
09시-10시	14363	4970	21시-22시	2702	7131
10시-11시	10229	4712	22시-23시	2070	5880
11시-12시	9595	5465	23시-24시	1101	2961
12시-13시	9613	5997	00시-01시	389	841
13시-14시	8627	6467	01시-02시	0	0
14시-15시	7980	7070	02시-03시	0	0
15시-16시	8127	8665	03시-04시	0	0

출처([서울시 지하철 호선별 역별 시간대별 승하차 인원 정보](#)> 데이터셋> 공공데이터 | [서울열린데이터광장](#))

4) 역세권 주변 정보

주거 분포

- 정릉역 1번출구 주변 정릉힐스테이트, 정릉우성아파트, 길음뉴타운 등 주거 밀집

상권 분포 및 특징

- 정릉역 1번출구 주변 정릉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분포
- 정릉역 2번출구 주변 정릉아리랑시장을 중심으로 한 상권 분포
- 전통시장이 중심이 되어 상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지만 대학가 상권이 혼합되어 젊은 층을 겨냥한 상권이 존재한다는 특징이 있음
- 공공·생활 기반 시설: 정릉역 주변 정릉10공원, 정릉교회, 송덕초등학교 등 생활 기반 시설 밀집

교통 연계

연계 버스

1번 출구 (정릉입구, 정릉역)	간선	162
	지선	1014, 2115
	심야	N31

2번 출구 (정릉입구, 정릉역)	간선	162
	지선	1014, 2115, 8111
	심야	N31
정릉로 (1번 출구) (승덕초교)	간선	110A, 143, 163, 171, 110B
	지선	1113, 1114, 1164, 1213, 7211, 2115
	마을	성북06, 성북07

5) 촬영계획

① 역사

출입구 전경 및 안내 표지판

정릉역 내 주요 시설(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안내부스, 화장실, 고객 안전실 등)

승강장 구조(플랫폼, 스크린도어, 층별 구조)

정릉역 대합실(B2층) 전경

② 역세권

1. 정릉(후보)

선정이유: 정릉역의 주요 관광지

촬영대상: 정릉 주변 촬영, 정릉의 교통 접근성 촬영

2. 정릉2동 주민센터

선정이유: 정릉역 주변 공공 행정 시설의 접근성을 보여줄 수 있음

촬영대상: 주민센터, 주민센터 주변 주요 교통(버스 정류장), 안내 표지판 등 촬영

3. 정릉역 주변 아파트 촬영

선정이유: 정릉역 주변 주거시설과 정릉역의 연결성을 보여줄 수 있음

촬영대상: 정릉힐스테이트 전경, 정릉우성아파트 전경 등 다양한 아파트 단지의 전경을 촬영

2. 현장 조사

1) 역사 내부 체험

출입구 접근성

- 1번 출구와 2번 출구 모두 에스컬레이터로 이루어져 노인, 어린이 등 계단이 불편한 사람도 쉽게 출입할 수 있음
- 1번 출구와 2번 출구 양쪽에 엘리베이터가 운영되고 있어 임산부, 노인, 휠체어, 유모차 등 교통약자도 쉽게 정릉역 내부로 출입할 수 있음
- 내부에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어 결론적으로 출입구, 대합실 및 플랫폼 접근성이 매우 우수함

시설 이용 편리성

-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는 잘 작동하며 1번 출구와 2번 출구 양쪽 모두에 위치하고 있어 시설 이용 편리성이 우수함.

- 2017년 9월 2일에 개통하여 지하철역 상태가 매우 우수하며, 외관상 하자 없이 청결함
- 안내부스가 역사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문의하기 편리하고, 시설을 이용하는데 편리함

편의시설 상태

- 화장실은 남성 장애인 화장실, 여성 장애인 화장실이 모두 있으며 청결함
- 상점, 수유실은 없음
- 인명 구조 기구와 소화전이 플랫폼에 잘 배치되어 있으며 자동 제세동기가 잘 배치되어 있음
- 지하철역 노선도 및 1회용 승차권 발매/교통카드 충전기, 보증금 환급기가 잘 배치되어 있음
- 도서관 예약대출기 및 도서 반납함, 도서 투입구가 배치되어 있음
- 장애인 전동보장구 충전기, 정릉역 점자 안내판, 점자블럭이 배치되어 있음

체감 분위기

- 크고 작은 안내 표지판이 역사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가시성이 잘 확보되어 있으며,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음
- 좁은 역사 크기에 비해 개방감이 잘 확보되어 있음
- 돌이 마감재로 사용되어 밝고 고급진 분위기를 형성함
- 플랫폼 가는 계단에 난간이 잘 설치되어 있어 위험한 요인이 없으며, 결론적으로 역사는 전체적으로 안전함

2) 역세권 체험

주거지 현장 모습

- 정릉중앙하이츠빌1차아파트, 정릉중앙하이츠빌2차아파트, 정릉힐스테이트아파트, 정릉꿈에그린1단지아파트 등 소·중·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밀집하여 있음
- 주거단지의 노후도는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들이 노후화가 어느정도 진행되었으나, 신축에 해당하는 아파트도 있음
- 주거단지들이 밀집해있어 다양한 연령의 사람들이 관찰되었으며, 친근한 생활감이 잘 나타나고 있음

상권 분위기

- 정릉역에서 가장 가까운 전통시장인 정릉아리랑시장의 경우 점포 별로 상이하지만 포장마차의 경우 새벽 1시까지도 영업함
- 골목시장 분위기지만 주변에 주거시설이 많이 밀집되어 있어 활발히 영업함.
- 과일, 떡, 먹거리, 농수축산물 등 다양한 품목을 판매함
- TV에 출현한 음식집도 있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으며 지나가면서 둘러보기 좋은 시장임
- 하지만 대형마트, 백화점과 같은 대규모 쇼핑시설은 없으며 대부분 소규모 점포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거주민들은 미아동, 동선동등 정릉동 인근 지역에서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음

공공시설 접근성

- 정릉역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시설은 정릉2동 주민센터로,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음
- 정릉2동 주민센터 측면에는 내부순환도로가 위치하고 있으며 '정릉2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이 있음
- '정릉2동주민센터' 버스정류장은 간선, 지선, 공항버스를 승하차 할 수 있는 버스정류장으로 접근성이 우수함
- 정릉2파출소 또한 2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릉2동 주민센터 우측에 위치하고 있음
- 서울정릉우체국 및 정릉아동보건지소는 1번출구에서 각각 7분, 6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간선, 지선, 마을버스를 탈 수 있는 '정릉우체국앞' 버스정류장이 있어 교통 접근성이 우수함
- 결론적으로 정릉역 주변 공공시설의 이용 편리성과 교통 접근성은 매우 우수함

교통 연계 실제 체감

- 정릉역 1번 출구와 2번 출구 각각에 '정릉입구.정릉역'이라는 명칭의 버스정류장이 도보 1분 거리에 있음
- 2번 출구 도보 4분 거리에 '정릉2동주민센터'라는 명칭의 버스정류장이 있으며 1번 출구 도보 4분 거리에 '송덕초교'라는 명칭의 버스정류장이 있음
- 이 버스정류장들에서 버스를 탈 경우 여의도, 신설동, 서초, 삼성, 상암 등 서울의 주요 도시에 갈 수 있어 교통 연계가 우수함
- 정릉역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 자전거들이 안전하게 거치되어 있으나, 모빌리티 공유 자전거나 킥보드는 무분별하게 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음
- 인도는 잘 포장되어 있으나 혼잡할 가능성이 있는 인도 구간이 있음
- 결론적으로 정릉역의 인도 환경은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교통 연계는 매우 우수함

3) 이용 현황 관찰

시간대별 혼잡도

- 정릉역의 경우 경전철 특성상 지선이 잦고 비좁아 첨두시간대에는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임
- 점심에는 이용자가 많이 줄어들어 원활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음
- 주말보다는 오전 평일 출근 시간에 매우 혼잡한 모습을 보임

주요 이용자 층

- 우이신설선 주변 학교가 많고, 우이신설선 주변 거주자의 연령층이 고연령층인 특성 때문에 중장년층보다는 학생이나 고연령층이 주로 이용함
- 관광객은 등산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객들이 주로 이용함

현장에서 느낀 지역 분위기

- 정릉역 주변 대학교가 많아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이 보였으며, 주거시설이 서로 밀집되어 있어 매우 친근한 분위기를 현장에서 느꼈음
- 또한 고연령자들이 사담을 주고 받는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으나, 첨두시간에는 지하철 이

용자들이 혼잡하게 움직여 난잡한 분위기를 형성함

3. 결론 (종합 분석)

이 역세권의 종합적 특징

- 정릉역의 역세권은 교통 환경이 우수하며, 교통 연계는 매우 우수한 편임
- 주거지역이 다른 역세권보다 밀집되어 있으며, 아리랑 고개를 따라 구릉지 및 경사지형에 주거시설이 건설되어 있음
- 역세권은 정형화 되어 있지 않으나 주변 공공시설 및 생활 기반 시설과의 접근성이 우수함
- 상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발달하지 않음
- 청년층과 고연령층이 주로 지하철 역을 이용하며, 중장년층은 자가용 차를 이용함

다른 역세권과 비교했을 때의 차별성

- 다른 역세권에 비해 교통 환경이 매우 우수한 편임
- 다른 역세권에 비해 주거시설이 매우 많으나, 경전철이라는 특성 때문에 다른 역세권에 비해 혼잡하지는 않음
- 정릉역이 개통된지 얼마 되지 않아 역세권 개발이 완전히 이루어지지지는 않음

향후 변화 가능성

- 노후화된 주거지를 재건축하고, 보행 환경을 재정비하여 거주 편의성을 개선할 수 있음
- 역 주변 노후화된 상권을 재정비하고, 소규모 단위의 역세권 개발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빠르게 역세권을 상권의 중심으로 발달시킬 수 있음
- 경사지형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경사형 엘리베이터 등 편의 이동 수단을 설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주민과 공공의 협의를 통해 아리랑로를 확장함으로써 주거시설 밀집지역인 정릉역 역세권의 교통 환경을 더욱 개선할 수 있음
- 정릉을 테마파크로써 지역 특화 구역을 지정하고, 지역 특화 사업을 역세권에 진행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신용 창출을 유도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정릉역 역세권의 문제점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해 지역개발계획을 진행한다면 정릉역 역세권을 더욱 특색있고 활발한 역세권으로 발전시킬 수 있음